

주민 참여형 한(一)평(坪)공원

만들기 프로그램 개발



2002년 12월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목차

1장. 한 평 공원의 개념 및 대상지들	1
1. 한 평 공원의 개념	1
2. 한 평 공원 만들기	2
3. 한 평 공원의 대상지 찾기	5
4. 한 평 공원 대상지들 유형화의 필요성과 기준	6
5. 유형화에 따른 대상지들의 분류	8
2장. 사례 연구	13
0. 사례 연구 개요	13
1. '목수동의 공터' & '목수동의 계단 공간'	14
2. 금호동의 주차장과 휴식 공간	29
3. 원서동의 공터	41
4. 전농동의 개인 상가 내 공간	57
3장. 평가 및 제언	65
1. 총정리 및 평가	65
2. 본 연구의 의의와 제언	68
참고 문헌	71
부록	73
# 1. 30개소 대상지들	
# 2. 외국 사례	





I장. 한 평 공원의 개념 및 대상지들

1. 한 평 공원의 개념
2. 한 평 공원 만들기
3. 한 평 공원의 대상지 찾기
4. 한 평 공원 대상지들 유행화의 필요성과 기준
5. 유행화에 따른 대상지들의 분류



1. '한 평 공원 (一坪公園)의 개념

'한 평'이란 '단어'와 공원이라는 단어는 일면 부적절한 단어 조합으로 보인다. 한 평이란 그야 말로 작은 땅을 말하나 많은 사람들이 공원이라는 단어에서 연상하는 것은 큰 나무가 여유롭게 서있는 넓은 잔디밭과 신나게 물을 내뿜은 분수가 있는 곳일 것이다.

이런 부적절한 단어 조합에 대한 답으로 먼저, 한평 공원은 구체적인 무언가를 지칭하기 보다는 "상징어 일뿐이다"라는 우회적인 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토지 이용 밀도가 높은 도시에서 '한 평같이 작은 땅'이라도 찾아내어 '공원 같은 공간'으로 만들자는 황폐화 된 도시 개선에 대한 절실함이 실린 상징적인 조합이고 여기서 공원은 이성, 기능, 노동, 효율성, 속도가 중시되는 '도시'에서 '휴식, 만남, 녹음, 감성'을 제공하는 낙원같은 공간에 대한 상징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정원과는 다른 것은 '공공' 공간이란 것이다. 즉, 한 평 공원은 시민들이 도시 속에서 쉽게 마주치고 부담 없이 다가가 한 숨 들릴 수 있는 '쉼표' 같은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두번째 대답은 근래 대두되고 있는 도시 공원에 대한 새로운 모색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근대적 '도시 공원'은 도시화, 산업화의 산물로 노동에 지친 도시 생활자들이 자연을 만나 몸과 마음을 치료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서 발명되었다¹⁾. 그러나 '진짜' 자연을 만날 수 있는 교외로 쉽게 빠져 나갈 수 있는 교통의 발달

과 다양한 여가 시설의 개발 등의 사회적 변화 속에서 공원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이에 따라 공원에 대한 새로운 형태와 역할 모형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²⁾.

공원 탄생의 근원이 되었던 도시화와 산업화가 공원의 존재 이유를 다시 묻고 있는 것이다. 도시 공원에 대한 새로운 탐색의 여러 갈래 중 하나가 일상과 고립되어 녹색의 섬으로 존재하는 공원이 아닌 도시의 일상을 파고든 공원이다.

근래, 서울시에서 서울시의 유휴 공지를 찾아내어 조성하고 있는 '마을 마당'도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읽어낼 수 있다. 공원의 배치는 기본적으로 근린지구론에 의거하여 근린공원, 지구공원 등 각각의 위계를 가진 기준에 의해 균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개념으로 이루어져왔다. 즉, 이용자로부터의 거리 균등화이다. 이에 반해 비록 개

1) 공원(公園)이란 한자어휘는 말 그대로 공용(公用)의 정원(庭園)이란 의미를 갖고 있다. 공원을 나타내는 'park'은 중세 왕후, 귀족의 수렵장을 가리키는 단어였으나, 중세 이후 영국의 왕후·귀족이 소유, 독점 사용하던 수렵장이나 대규모 정원을 19세기 중반에 일반에게 공개한 것에서 근대적 공원 개념이 만들어졌다. 이후, 대도시의 시민에게 쾌적한 자연환경을 만들어 주어 심신의 휴양을 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공원을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뉴욕에 있는 센트럴파크가 그 좋은 예인데, 이는 뉴욕의 중앙에 위치하며, 340ha의 광대한 넓이로 구성되어 있다.

2) 네덜란드의 조경가 아드리안 허즈는 19세기 전통 풍경식 공원이 제공했던 가상자연을 더 이상 도시민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공원은 이제 더 이상 숨 막히는 도시 생활과 노동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개의 규모는 작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곳에 다수로 조성하고 있는 ‘마을 마당’은 ‘당신이 갈 수 있는 곳으로 가라(Galen Cranz, 1991)’라는 모토를 따른다. 그러나 설계개념이나 공간구성이 획일화되어 있어서 마치 한사람이 설계한 것처럼 비슷한 형태들과 기능들을 제공하는 마을 마당은 조남석의 지적처럼 고급화된 공터가 될 공산이 크다.

한 평 공원이 지향하고자 하는 것은 ‘마을 마당’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러나 ‘마을 마당’과는 달리, 도시의 삭막함을 역지로 녹색으로 위장시키거나 미관 향상을 목적으로 외관을 장식하는 공간은 아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대상지의 선정부터 구체적인 계획, 설계까지 주민, 계획가, 행정 간의 소통 속에서 대상지가 갖고 있는 여러 ‘가능태’들을 ‘현실태’로 이끌어 냄으로써, 일상에서 잠시 놓인 자투리 시간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 지역민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시발점으로서의 한 평 공원을 조성하려 한다.

2. 한 평 공원 만들기

한 평 공원이 지향하는 바는 의의가 있지만 계량적 효과는 ‘한 평’이라는 이름만큼이나 미약할 수 있다. 다양한 행태의 수용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 평 공원에 나무를 심는다고 할 때 심고 관리하는 수고와 에너지에 비할 때 그 나무가 도시 환경 개선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가도 회의적이다.

따라서 한 평 공원은 도시의 하부시설로서 시스템적으로 연계되어 존재해야 할 것이며, 어쩌면, 한 평 공원 그 자체보다 한 평 공원 “만들기”라는 하나의 사건이 지역 사회에 일으킬 파장이 더 중요할 것이다. 다음은 보다 더 큰 파장을 내기 위한 한 평 공원 만들기 내기 위한 조건들이다.

■ “한 평공원-녹색의 공간”? - 그럴 수도 아닐 수도....

한 평 공원의 결과물은 어떠한 것일까? ‘공원’에 대해 일반인이 갖고 있는 상은 “녹색의 공간”일 것이다. 그러나 한 평 공원은 나무가 심겨져 삭막한 도시에 푸름을 줄 수 있는 공간일 수도 있고, 무채색의 도시에 다양한 색을 줄 수 있는 꽃이 심겨진 공간일 수도 있을 것이며 의자 하나 놓여져 도시의 일상에 지친 이들의 잠깐의 휴식 공

간일 수도 있을 것이다. 즉, 한 평 공원에서는 “녹색의 공간”이라는 공원이 갖는 전형성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그 결과가 어떠한 간에 중요한 것은 한 평 공원 만들기는 그냥 두면 버려질 작은 땅을 찾아내어 의미가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것이고, 이것은 다시 말하면 ‘장소’ 만들기이다.³⁾ 기능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만들어진 현대의 우리 도시는 기본적으로 기하학적인 “공간”이다. 그러나 지리학자 투안에 따르면 우리가 기하학적인 ‘공간’을 더 잘 알게 되고 그것에 남다른 가치를 부여할 때 ‘장소’가 될 수 있다고 한다.⁴⁾ 일례로, 길모퉁이에 목련을 한 그루 심으면서 그 곳은 무심하게 지나치게 되는 ‘길모퉁이 공간’에서 봄이면 보는 즐거움을 주는 ‘목련이 피는 장소’로 탈바꿈된다. 평상 하나가 놓이므로 씨 주변 주민들의 커뮤니티 장소가 될 수 있다.

차량 증가로 인한 주차 문제가 심하지 않던 60, 70년대 주택가의 길들은 ‘장소’였다. ‘어린이들의 놀이 공간’, 때로는 ‘작업 공간’, ‘만남의 공간’ 등등. 그러나 차량이 증가되면서 단지 ‘통로’로서의 역할만을 하는 ‘공간’으로 존재한다. 한 평 공원 만들기는 안과 밖의 명확한 구분 즉 개인의 공간과 공공의 공간의 명확한 구분 그리고 자동차에 빼앗긴 장소들을 회복하자는 것이며 장소성을 붙여넣자는 것이다.

따라서 그 결과물은 대상지의 성격과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나무가 심겨진, 벤치가 놓여진, 조각물이 세워질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서울시가 일률적으로 실시하

고 있는 ‘녹화’사업과 차별성을 갖고자 하는 것이다.

■ 과정으로서의 한 평 공원

과정으로서의 한 평 공원은 장소 만들기로서의 한 평 공원과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 장소의 진솔성 즉 장소성은 환경 형태의 속성이 아니라, 과정과 관계의 속성이며 (Dovey, 1985: 33), 장소는 반복적인 접촉과 복합적인 연상 작용들을 통한 기억 및 애착으로 구축된다 (Relph, 1985: 26-27). 이러한 견지에서 이석환은 장소 만들기는 네 가지 차원에서 가능하다고 한다.⁵⁾ 첫째는, 이용하는 활동을 통해서 둘째는, 기존의 환경 및 대상에 대하여 물리적 환경을 새로이 변화시킴으로써, 셋째는 주어진 환경을 인식하고 이해함으로써, 넷째는 새로운 장소를 만들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설계하는 행위로, 이 네가지 방법으로 장소는 만들어진다.

여기에서 한 평 공원 진행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물론, 한 평 공원 사업의 최종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은 두 번째 - 기존 물리적 환경의 개선과, 네 번째 - 계획과 설계의 결과물일 것이다. 그러나 과정 속에서 나머지 두 가지 방법을 함께 함으로써 더욱더 장소 만들기를 공

3) 장소는 의미가 부여된 공간이다. Cater, Donald, and Squire, 1993: 12)

4) (Tuan, 1979: 6)

5) 이석환, 도시 가로와 장소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p. 52.

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상지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묻고 관심을 촉구하는 과정 속에서, 대상지를 중심으로 하는 작은 이벤트를 만들어냄으로써 대상지를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 관심을 갖고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일례로, 한적한 도로 한쪽에 자리를 깔고 수박을 먹는 기회를 가져봄으로써 단지 이동공간이 아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재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장소'로의 변화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왜 한 평 만들기에 주민 참여가 중요한지도 유추해낼 수 있다.

■ '마을 만들기'의 시발점으로서의 '한 평 공원 만들기'

결과물은 대상지에 대한 설계안이 나오는 것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대상지만이 아닌 대상지가 위치한 지역 사회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지역 사회를 궁극적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대상지가 위치한 지역의 물리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대상지를 파악함으로써 가장 적절한 대응 전략을 끌어낸다는 것도 있지만, 지역사회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한 평 공원 만들기 과정 속에서 지역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과정 속에서 주민들은 우리 동네의 특성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동네의 좋은 점은 무엇인지, 우리 동네를 보다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더 방법들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한 평 공원'이라는 자그만 성과를 통해 자신들의 삶의 공간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주민들이 이미 집 앞에 화분을 내어 놓다거나 담벼락 공간을 활용하여 화단을 만들면서 자신들의 환경을 가꾸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들은 개별화되어 있고 개인적인 일로 남아 있다. 개별화된 이러한 활동들을 전체적인 틀에서 묶어내고 개인적 관심들을 엮어내, 그들의 개인적 활동과 관심이 '우리 집 앞'에서 '우리 동네'로 확장시키는 계기를 마련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필라델피아 북부 도심에 있는 비영리단체 Village of Arts and Humanities나 영국의 Groundwork 같은 비영리 단체들은 경관이나 공원 같은 외부 공간 조성을 지역 활성화 사업의 시발로 여긴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 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들은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이를 계기로 지역의 다른 공동 사업을 진행할 여지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외부 환경 개선은 '사회적 자본'⁶⁾ 형성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

6) 사회적 자본은 정체성을 지닌 어떤 사회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생산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공식적인 제도뿐만 아니라 이를 유지시켜 주는 규범과 비공식 기능까지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사회적 관계를 말한다. 사회적 자본은 발전 현상의 가치체계인 경제정의, 사회정의, 그리고 환경정의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금융자본, 물리적 자본, 인간자본보다

리고 새로 만들어진 공공 공간을 통해 사람들이 서로 쉬이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3. 한 평 공원의 대상지 찾기

자투리땅은 면적에 있어서 협소하거나 지형 조건상 건물 입지 등이 어려워 자투리 필지로 방치된 땅이다. 그리고 대로변, 하천변, 철도변 등 주 목적을 위해서 파생적으로 만들어져 이용과 관리에 있어서 관심을 갖지 않는 땅이다.

본 사업 시작 당시의 의도는 서울시의 자투리땅이나 버려진 땅을 찾아 주변 주민들의 동의와 합의를 끌어내고 의견을 들어 한 평 공원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제 2기 민선 시장의 공약 사항인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 심기'를 1998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 4년간에 걸쳐 진행하면서 자투리, 버려진 공간들을 공원화, 녹화하였다.

'마을 마당'이라는 이름으로 주택가 주변의 자투리 필지로 버려져 방치된 공지 중 사유지, 공유지, 체비지 등 개발되지 않은 소규모 공유지를 100여 곳을 공원화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2001년과 2002에 서울시내 34개소를 대상으로 '자투리 녹지'사업을 실시하였다. 2001년, 서울시의 재산관리과에서 국공유지의 목록을 구청의 공원 녹지과에 보내 녹화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했고, 각 구

더 효과적이다. 또한 인류문명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지역사회 자원배분이 최적화되고, 다양한 기회가 존중되어야 하며, 경제적의, 사회적의 그리고 환경정의가 전제되어야 실현될 수 있는 덕목이다. (소진광(2002),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의 연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세미나 자료집-21세기 국가발전과 국토환경, pp. 29-44)

청에서 현장 확인을 통해 녹화 가능성을 검토하여 결과를 다시 서울시의 공원과에 보냈고 서울시 공원과에서는 최종적으로 30개소를 선정했고 2002년에는 녹화에 들어갔다고 한다. 큰 도로에 있어서도 가로수 아래의 포장재를 뜯고 가로수 등 사이의 공간에 '관목심기'사업을 하고 있었고, 도로에 면한 법면에도 입면 녹화를 하고 있었다. 그 외에도 옥상, 공공기관 담장, 지하철역사 주변, 도로변, 철도연변, 하천변, 한강 고수부지 등등을 녹화하였다.

이렇듯, 이미 공식적으로 자투리땅들로 여겨지는 곳들은 거의 녹화가 되고 있어 '한 평 공원'대상지를 찾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했다. 본 사업에서는 한 평 공원 만들기 '장소 만들기'이라는 생각을 견지하면서 그 범위를 넓게 열어두고자 한다.

물론, 1. 별도의 기능이 부여되지 못한 채 쓰레기 등의 적치로 버려진 자투리땅들을 대상으로 하나,

2. 이미 서울시나 개인이 녹화를 했거나 시설이 놓여져 있더라도 주민들의 무관심과 관리 소홀로 다시 버려진 곳들 중, 주민 참여를 통한 '장소 만들기'가 가능한 곳,

3. 인도나 계단 골목 등 '이동'이라는 주 기능을 갖고 있어 자투리, 버려진 땅은 아니나 주민들 스스로가 생활 속에서 공간의 잠재성을 파악하여 한 모퉁이에 화단, 휴식 시설을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는 곳들이다. 이미 활용되고는 있으나 주변과의 연계와 개선 작업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는 곳들을 대상으로 보았다.

4. 한 평 공원 대상지들 유형화의 필요성과 기준

한 평 공원의 확대를 위해서는 진행자가 본 연구에서 겪은 시행착오를 덜 거치면서 보다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본 연구의 진행내용과 결과를 '일반화' 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 평 공원의 대상지들의 범위가 넓은 만큼, 대상지들의 특성이 다양하여 본 연구의 진행 내용과 결과를 일반화 시켜 '보편적인 것'으로 제시하기에는 여러 가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상지들을 유형화하고 각각의 유형들을 대표할 수 있는 대상지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일반화의 가능성을 높여 준다.

대상지들의 유형화는 크기나 땅의 모양새 등 물리적 성격에 따라서 혹은 상업지역에 위치하는가? 주택지역에 위치 하는가? 등 위치한 곳의 토지 이용에 따라서 다양하게 유형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민 참여'를 지향하는 만큼, 최종 결과물뿐만 아니라 과정에 있어서도 차이를 가질 수 있도록 유형들을 구분하고자 하며, '건물への 부속 여부'와 '현재 이용 상태' 두 가지가 그러한 기준이 아닐까 싶다.

		건물예의 부속 여부	
		건물예 부속	건물예 부속되지 않음
현재 이용 여부	현재 이용	유형 1	유형 2
	현재 이용 없음	유형 3	유형 4

건물예의 부속 여부는, 주택가의 담벼락 공간, 상가 시설의 입구부 공간같이 건물에 부속되어 있는가, 아니면 주변의 건물들과는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가이다. 그리고 현재 이용 여부는 주민이나 행정이 휴식, 녹지 기능을 부여하고 있는가? 아닌가에 대한 것이다.

건물예의 부속 여부에서, 건물에 부속되지 않은 공간일 경우 다수의 의견 수렴을 얻어내어야 할 것이다. 반면, 건물에 부속되어 있는 공간일 경우 대상지 인접 개인의 동의와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며 이에 따라 과업 진행에 있어서도 차이점을 가질 것이다.

주택가의 담벼락 공간이나 상업건물의 전면부 공간 같은 경우 실제 소유에 있어서는 공적 공간일 수도 있으나, 개인의 영역과 밀접해 있어 실질적인 이용과 관리가 개인에게 있다는 것이 다른 공적 공간과 구분되어 진다. '우리 집 앞', '우리 가게 앞'인 곳으로 배타적으로 사용되어, 주차 등과 관련해서 문제들이 있으나 이러한 소유의 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하여 '내 집 앞 가꾸기 운동'

등을 전개할 수 있고 이는 마을 만들기의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중간 영역의 공간은 그 자체로 도시 환경 미화와 옥외 활동을 늘려 주민들 간의 교류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적'공간이 사적 이용의 최대화를 추구한 나머지 지나치게 '폐쇄'된 공간이 되고 한편 도시 '공적'공간의 대부분을 이루는 가로는 자동차에게 주어졌다. 따라서 인간적이고 쾌적한 가로의 골격을 이루는 이러한 중간 영역을 어떻게 다루는가는 가로 경관을 쾌적하게 조성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⁷⁾. 공과 사가 명확히 구획되어 있으면 공적 환경에 발길을 옮기는 것이 귀찮게 된다. 반면 공적 공간도 아닌 그렇다고 사적 공간도 아닌 이행 구역은 옥외 활동을 유인하고 주민들 간의 접촉을 높인다(Jan Gehl, 1986).

건물예 부속되지 않은 공간은 가로의 일부분이나 별도의 필지로 존재하는 공간이다. 가로 공간은 별도의 기능이 확실히 주어져 있으나, 가능치 않고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넓은 인도의 한 귀퉁이, 계단골목 등 주민들은 일상적 실천 속에서 나름대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7) 일본에서는 가로를 형성하는 '가로 경관 영역'으로 받아들여서 집합주택 설계시 '열린 가로 구역'이라는 <공공>공간과 <사>공간을 일체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다(에가와 나오끼, "집주 공간의 형태를 디자인한다", 도시 환경 디자인, 1999)

볼 수 있었는데, 공식적으로는 별도의 기능이 주어졌기 때문에 지역의 외부자에게는 잘 보이지 않고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착된 관찰 속에서만이 발견될 수 있었다. 별도의 필지로 존재하는 공간은 서울시나 구청의 소유이나 협소하거나 지형의 문제로 별도의 기능이 부여되지 않은 자투리 공간들 또는 방법 초소와 같이 행정 정책의 변화로 기존의 역할 수행이 필요 없어진 공간들이다.

현재 이용이라는 기준에 있어서는, 현재 이용되지 않고 버려진 공간이라면 새로운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되나, 현재 이용되어지고 있는 공간이라면 현재 이용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시에 있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개선이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진행자(본 사업의 진행자나 행정 등)들의 편견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현재 이용자들 그리고 최종 이용자들과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예를 들어, 다소 물리적 현황은 불량하나 낙후된 의자 하나로 '바둑을 두는 공간, 주민들의 작은 휴게, 놀이 공간'이 되어지고 있다면 '불량한 물리적'에 주목하여 낙후된 의자를 치우고 녹화를 할 것인지 아니면 '바둑을 두는 공간 주민들의 휴게, 작은 놀이 공간'에 주목하여 시설을 교체해줄 건지 등의 문제이다.

5. 유형화에 따른 대상지들의 분류

서울시 성동구, 동대문구, 종로구, 중구, 관악구 등의 외부 공간을 답사 하면서 본 연구에서는 앞의 한 평 공원의 대상지들을 찾는 기준에 따라 한평 공원 대상지 30개소를 산정하였다. 다음은 유형화 기준에 따라 30개소 대상지들⁸⁾을 구분한 것이다.

■ 유형 1 ⇒ 16개소

■ 건물에 부속되어 있고 현재 이용되고 있으나 한평 공원 조성을 통해 보다 활발한 이용이 가능한 곳으로 판단되어 지는 곳

■ 개인 주택의 담벼락 공간이나 상업건물의 전면부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대상지 1



대상지 3

8) 대상지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부록 1'에 첨부



대상지 4



대상지 8



대상지 5 대상지 23



대상지 9



대상지 10



대상지 7



대상지 11



대상지 6



대상지 13



대상지 16



대상지 24



대상지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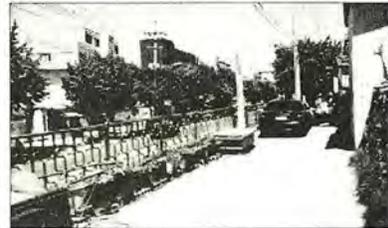


전농동 개인 상가내 공간

■ 유형 2 ⇒ 8' 개소

■ 건물에 부착되어 있지 않고 현재 이용되고 있는 곳들 중 한 평 공원으로 조성할 경우 활발한 이용이 가능한 곳으로 판단되어 지는 곳

■ 도로에 의자나 화분이 놓여져 있는 식재 공간이나 주민들의 휴식, 담소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간이 여기에 해당되어진다.



대상지 2



대상지 12



대상지 17



대상지 18



대상지 19



대상지 20



대상지 22



금호동의 주차장 및 휴식공간

■ 유형 3 ⇒ 3개소

■ 건물에 부속되어 있지 않은 공간들 중 차량의 방해나 건물 소유주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한평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곳들

■ 개인 주택의 담벼락 공간이나 상업건물의 전면부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대상지 15



대상지 25



목수동의 계단공간



원서동의 공터

■ 유형 4 ⇒ 3개소

■ 건물에 부착되어있지 않은 공간들 중 현재 별다른 이용 없이 쓰레기 적치장 등으로 방치 되어 경관적으로 불량하고 주민들에게 심리적 위협이나 불쾌감을 주는 곳들

■ 넓은 도로의 귀퉁이나 별도의 필지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공유지나 별다른 시설 도입이 없는 곳들



대상지 21



목수동의 공터



2장 사례 연구

0. 사례 연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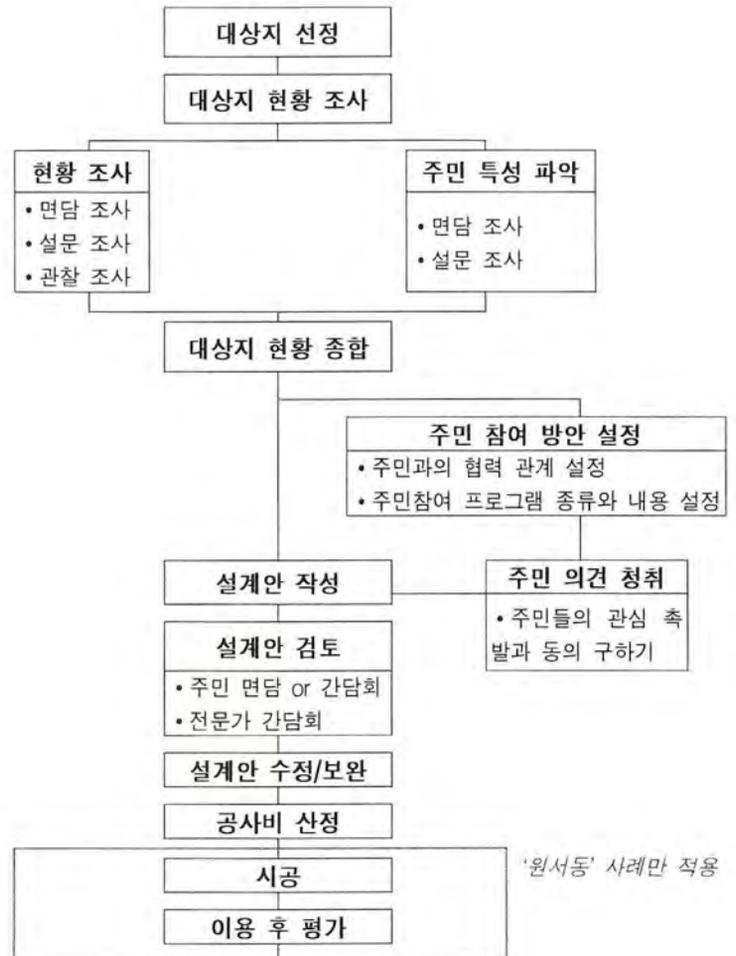
1. 옥수동의 공터' & 옥수동의 계단 공간'
2. 김호동의 주차장과 휴식 공간
3. 원서동의 공터
4. 전보동의 개인 상가 내 공간



0. 사례 연구의 개요

'1장의 4'에서 제시한 각각의 유형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례 대상지로 5개소를 선정하여 다음의 표와 같은 순서로 각각의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 | | |
|---------------------|------|
| 1. 옥수동의 공터 | 유형 4 |
| & | |
| 옥수동의 계단 공간 | 유형 3 |
| 2. 금호동의 주차장 및 휴식 공간 | 유형 2 |
| 3. 원서동의 공터 | 유형 4 |
| 4. 전농동의 개인 상가 네 공간 | 유형 1 |



사례 연구 진행 틀

1. '옥수동 공터' & '옥수동의 계단 공간'

1) 대상지의 현황

① 주변 현황 및 대상지의 특성

서민들의 주거지역으로 6.25를 전후로 소위 '달동네'라는 이름의 불법거주지로 형성되기 시작하여 1970년대 후반, AID차관 재개발로 토지 불하가 이루어지고 건물들이 재건축, 신축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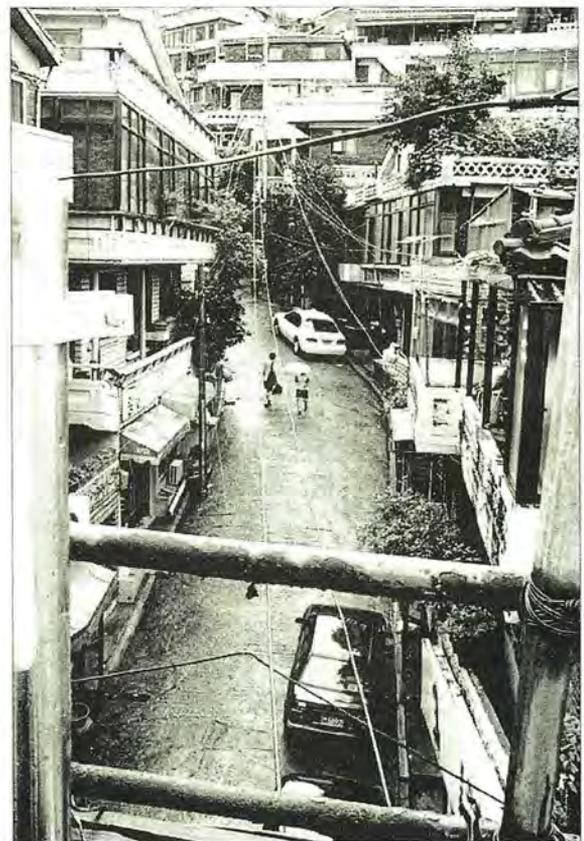
경사지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역인 만큼, 급경사의 도로와 계단이 특징적 경관을 만들어낸다.

주택은 보통 2층의 다세대 건축물이나 경사를 이용한 지하층과 옥탑방으로 한 건물에 보통 4, 5 세대가 거주한다. 내부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정원 등의 주택 내 외부 공간은 전혀 없다.

그러나 주민들은 협소하나마 주택 내, 주택 외부의 담벼락 공간, 대문위의 공간, 옥상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목을 가꾸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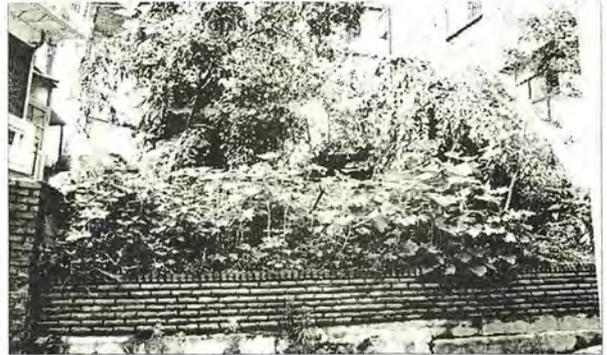
옥수동 주변-위에서 아래로



옥수동 주변-아래에서 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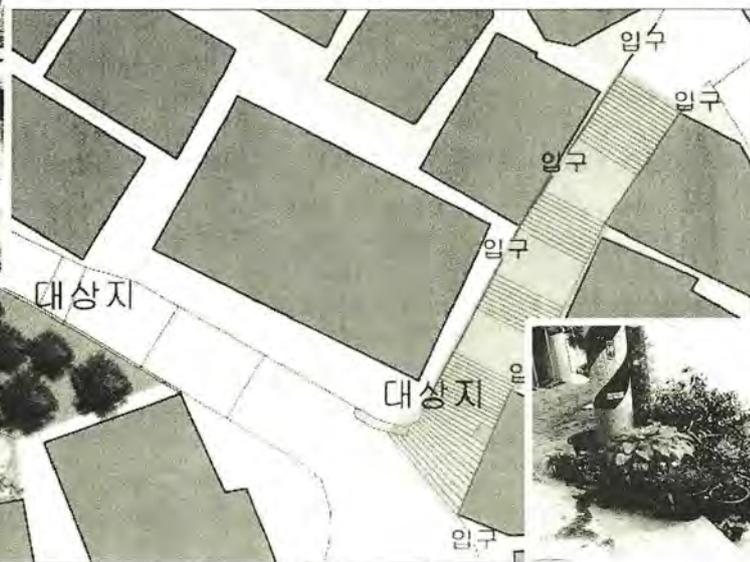
■ 대상지 1 - 옥수동의 공터

건물들 사이의 자투리땅으로 면적이 좁고 뒤편으로 암벽이 있어 주택이 들어서기 어려운 실정이다. 2000년 구청에서 녹화사업을 하였으나 일부 주민이 나무를 걷어내고 호박 등을 심어 개인 텃밭으로 사용하다 올해에는 방치하여 잡풀이 무성하고 주변은 쓰레기가 적치되어있다. 고양이들의 서식공간이기도 해 위생에 있어도 문제가 된다. 소유는 서울시이다.



■ 대상지 2 - 옥수동의 계단 공간

계단공간은 유일하게 차량 진입이 없는 외부 공간으로 화분 내어 놓기, 주민들이 담소를 나누는 공간이다. 떨어짐의 위험 때문에 계단 상부는 주차가 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여가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대상지 평면

② 주민 특성 - 면담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지도상 서울의 중심에 있어 서울의 도심이나 강남과의 접근이 좋고 기존 환경을 유지하는 한에서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현지 개량 형식의 재개발로 초기 이주민들이 현재까지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 간에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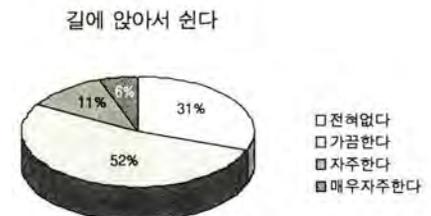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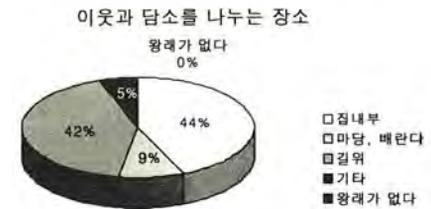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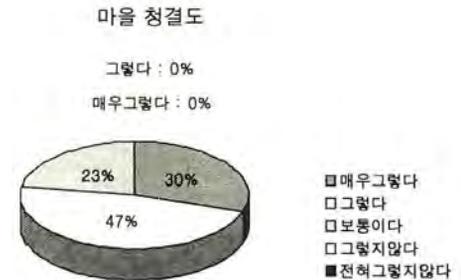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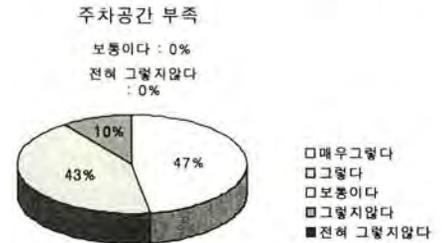
인적 네트워크의 하나로서 계(係) 조직을 들 수 있다. 직업별, 지역별, 출신 고향별로 계조직이 활성화되어 있고 대상지가 위치한 우정마을에 있어서도 집 주인들 간에 계조직이 형성되어 있어 매달 부부 동반의 계모임을 갖고 있다.

이 계모임에서는 주거 환경의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들이 간혹 여담으로 이야기되고는 있으나 실천적으로 옮겨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한때 각각의 주택 담벼락에 벽화를 그리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으나 주도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없어 실천되지는 못했다고 한다. 다만, 주차 문제며, 쓰레기 수거 등의 문제가 정기적 모임 속에서 이야기되고 있어 이런 문제로 인한 주민들 간의 마찰은 거의 없다고 한다.

오래 거주한 주민들 외에, 임대료가 저렴한 옥탑이나 지하의 경우는 지방에서 상경한 대학생들, 직장인들과 저렴한 주거 공간을 찾아 외부에서 이입한 신혼부부들이 많이 살고 있다.

③ 주민들의 외부 공간에 대한 활용 정도와 만족도

조사 방법: 설문조사, 조사 일자: 2002년 5월
피조사주: 남-14, 여-25



길에서 이웃과 담소



운동 빈도



■ 우리 동네를 쾌적하게 하는 방안이나 기타 재활용 분리수거함이 배치되어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 공간 빈터에 벤치나 의자를 만들어 쉴 수 있는 공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나무를 많이 심어 좀 더 푸르름이 짙었으면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동네 길거리에 너저분하게 버려진 쓰레기가 문제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항상 깨끗하게 이용한다. 자기집 앞 청소를 잘 해야지요

주민들은 지역의 녹음 정도와 청결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고 휴식, 담소 측면에서 지역내 외부 공간의 활용도는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적절한 공간 부족으로 운동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이용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2) 주민들과의 협력 방안

면담 조사를 통해 대상지내 '우정회'라는 주민 자치 모임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제까지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실천적이지 못했으나 동네 환경 개선에 대한 관심들과 논의들이 이 모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다.

더불어, 구성원들의 옥수동과 금호동에서의 거주 기간이 평균 10년 이상으로 매우 길며 40대 이상의 장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원들 중 몇몇 남자 회원들은 지역 내에서 가내수공업업을 하고나 슈퍼마켓, 부동산을 운영 하는 등 직업상 일과의 대부분을 지역 내에서 보내고 있어 지역 문제에 민감하다. 이를 잘 활용한다면 추후 지속적인 주민 참여를 통한 외부 환경 가꾸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설문 조사와 면담 조사 결과 선정된 두 개의 대상지 변경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반응을 보여 이 '우정회'라는 자치 모임을 중심으로 두 대상지 변경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여져 추후의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논의를 '우정회'를 중심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다만, 구성원들이 집주인들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 할 수 있다.

3) 대상지 조성 방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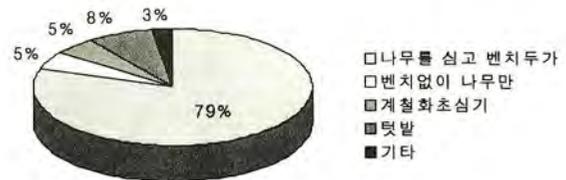
① 면담조사 결과

‘옥수동의 공터’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녹화한 꽃나무를 없애고 자신의 텃밭으로 사용했던 할머니에 대한 원성이 높았으며, 인접 주택 사람들에게 피해가 없는 정도에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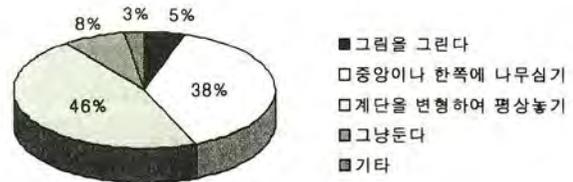
‘옥수동의 계단’의 경우, 계단 상부 공간은 차량 주차가 불가능하여 추운겨울이나 비오는 날을 제외하고는 여가 공간으로 항상 이용되고 있으며, 일어나는 행태는 담소, 음식 먹기, 뜨개질 등이라 한다. 이로 인해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으로 인한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을 법도 하지만 이제까지 크게 문제시 된 적은 없었다고 한다.

② 설문조사 결과

빈터를 어떻게 바꾸었으면 좋겠는가?



넓은 계단활용방안



차가 주차되지 못하는 계단 상부 공간에서 여름날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③ 주민들과의 간담회

“마을 이름 짓기와 대상지들의 활용 방안 및 동네의 외부 환경 문제점”

- 회의 일자: 7월 27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 부터
- 회의 공간: 동네 골목
- 회의 안건: ① “서울시의 2003년 녹화 재료 지원 사업”¹⁾과 관련하여 2003년 각 가정에 식재할 수목 선정
- ② 우리 동네 옥외 공간의 문제점
- ③ 두 곳의 자투리 공간 가꾸기
- ④ 동네 이름
- 회의 참석자: 김연금, 우정희 회원들을 중심으로 하는 동네 주민들

■ 회의 진행

대상지 2인 계단 아래 공간에서 수박과 떡 등의 다과로 편안한 분위기로 회의가 진행되어졌다. 전에 계원들이 함께했던 여행 이야기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대화들 속에서 회의 안건들에 대한 의견들의 교환되었다. 회의의 필요성 및 내용을 잘 알고 있는 한 주민(우순자)의 진행으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 회의 내용

① “서울시의 2003년 녹화 재료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2003년 각 가정에 식재할 수목 선정

각 가정별로 필요한 수목을 1, 2 그루 정도 선정하였다. 그러나, 이미, 적극적으로 수목 가꾸기를 하고 있어 수목을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적절치가 않아 대부분의 주민들은 관목을 원했으나 서울시가 지원하는 수목은 제한적이라 이에 대한 불만들이 있었다.

② 우리 동네 옥외 공간의 문제점

여름 철 하수구에서 나오는 냄새에 대한 지적이 많았고 한 주민이 냄새를 막기 위해서 덮개를 덮었으나 장마 시 동사무소에서 치웠다고 한다. 주민들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원했다. 또한 주택으로 입구부 콘크리트 포장이 부식으로 지저분하다고 지적하였다.

③ 두 곳의 자투리 공간 가꾸기

대상지 1은 현재, 일부 주민들이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불만들이 잠재적으로 있었다. 작은 쉼터 공간으로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다만, 대상지 1 바로 옆 주택에 사는 주민은 큰 정자 설치 시 창문이 가려질 것을 염려하였다. 계단 공간은 지

1) 시민 녹화사업 지원

서울시에서는 내년 봄에 각 마을에 심을 나무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담장을 헐고 생울타리를 조성하는 경우나 마을 빈터에 나무를 심고자 하는 경우, 나무와 꽃, 그리고 비료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참여를 원하는 마을은 오는 17일까지 동사무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 : ~2002. 8. 17 해당 동사무소

▷ 공급 : 내년 4월 초순

(자료: <http://www.metro.seoul.kr>)

나가는 사람들이 잠깐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고 다만 계단들이 만드는 높이 차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해결을 염려하였다.

④ 마을 이름

“우정회”라는 계모임의 이름을 따라 “우정 마을”로 정하였다.

④ “어린이들이 생각하는 우리 동네 그림 그리기”

- 대상: 옥수 1동에 있는 ‘동호 엘리트’학원 초등학교 2, 3, 4, 5학년생 등 16명
- 장소: 동호 엘리트 학원 내
- 일자: 7월 15일
- 준비자료: 패널 두장 (서울의 옛 지도와 금호동 옥수동의 옛 사진들, 학원 주변의 동네 지도)
- 진행 시간: 1시간 20분
- 진행 과정

먼저, 어린이들에게 준비해간 패널 두장을 설명하면서 그림 그리기의 의도가 전달되도록 한 후, 두 조로 나누어서 ‘우리 동네 지도 그리기’를 진행하였고 그림 그리기가 끝난 후에는 자신들의 그림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우리 동네는 이렇게 생겼어요” “동네에 이렇게 있었으면” “우리 동네는 이게 문제야” “우리 집은, 내 친구네 집은” “여기서 다칠 뻔 했어요”



간담회 모습



옛날 우리 동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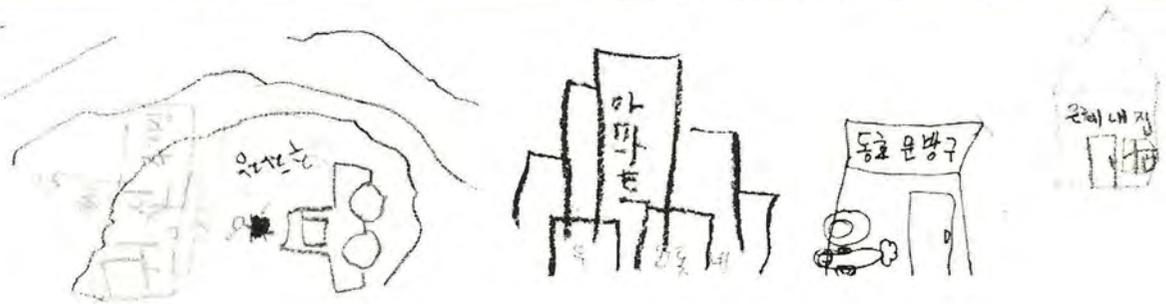


그림 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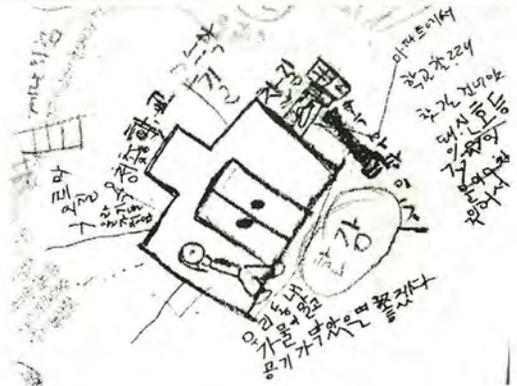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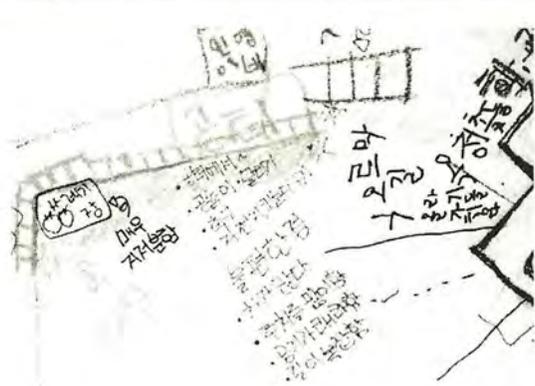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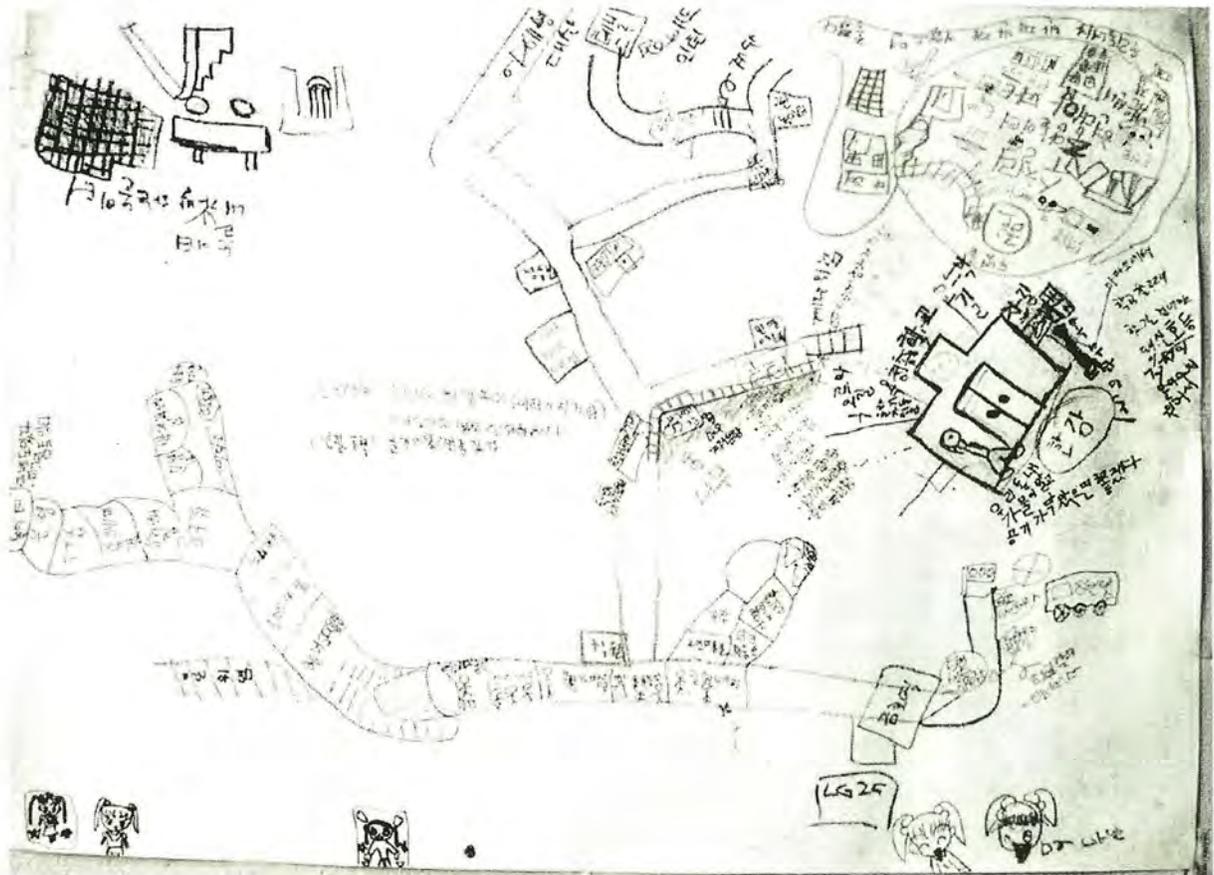


왜 이렇게 그렸을까?

138 그림



2조 그림



4) 설계안 작성 (설계 진행: 신근혜)

(1) 설계 방향

■ 대상지 1 - 옥수동의 공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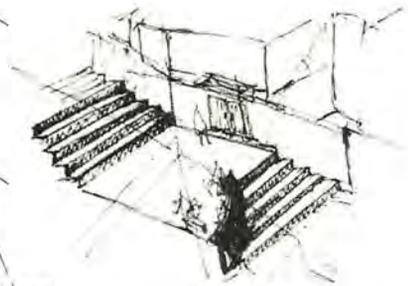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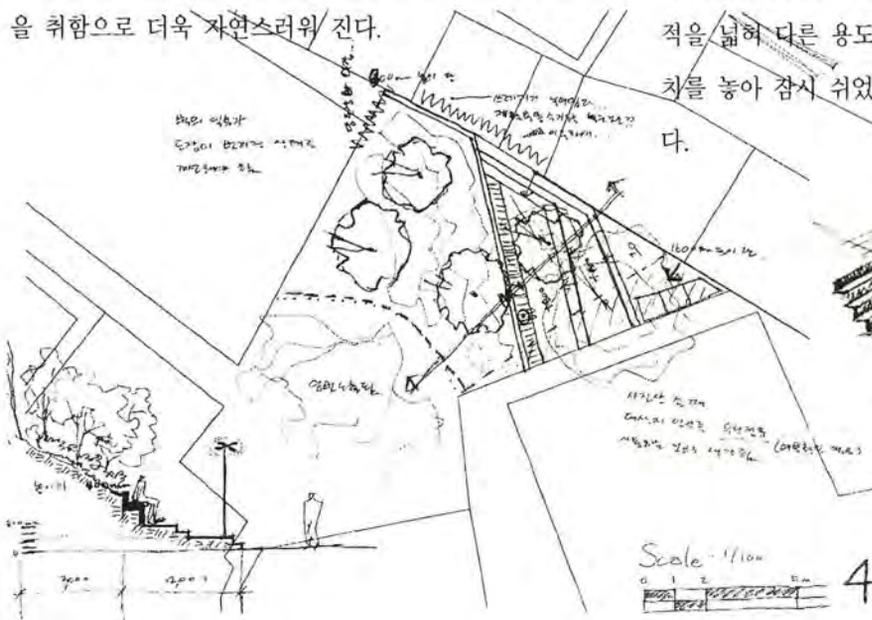
현재 모습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암반이 노출되어 있고 나무들이 암반 앞에 수목들이 식재되어 있고 비교적 암반과 나무가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단지 바라보는 경관으로서의 역할에서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으로의 변화를 제안한다.

대상지의 암반앞쪽의 화단에 계단형 스탠드를 설치하여 쉼터를 제공한다. 이곳은 주민들의 '만남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또한 암반과 나무의 그늘 속에서 휴식을 취함으로 더욱 자연스러워진다.

■ '대상지2-옥수동의 계단'

본 대상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속적으로 계단이 놓여 있다. 계단을 올라가는 주민들에게 짐으로 귀가하는 길은 매우 단조롭고 힘들다. 단조로이 올라가는 계단에 변화를 주고 또 다른 공간을 집어 넣어 본다.

경사지에 위치한 이 계단에서 중간 중간에는 주택으로 진입을 위한 계단참이 있다. 이 장소에 조그마한 화단을 계획하여 계단을 오르는 이에게 시각적 즐거움을 준다. 또한 계단참의 일부는 공간을 할애하여 계단참의 면적을 넓혀 다른 용도로 활용가능하게 한다. 여기에는 벤치를 놓아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겠다.



② 1차 설계안



대상지 1에 대한 설계안



대상지 2에 대한 설계안

③ “1차 설계안에 대한 주민들과의 간담회”

- 회의 일자: 8월 31일 오후 7시 부터 8시
- 회의 공간: 동네에 있는 음식점
- 회의 안건: ① “서울시의 2003년 녹화 재료 지원 사업”에 신청했음을 알림 ② 1차 설계안에 대한 평가
- 회의 참석자: 김연금, 우정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하는 동네 주민들
- 회의 진행

바쁜 주민들을 별도로 한자리에 모이게 하기가 힘들어 ‘우정회’의 계모임 날,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설계안을 설명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주민 간담회의 모습

■ 회의 내외

'대상지-옥수동 공터'

그늘을 만들어줄 수 있는 정자 같은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실용성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전부 다를 포장공간으로 변경했으면 좋겠다.
 여름에 수박이라고 먹을 수 있으려면 포장 공간이 더 많아 야 하는 건 아닌가?
 주변 주택의 사람들이 시끄럽지 않고 시각적인 방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 상태로 두어봤자 지저분하므로 실현이 되었으면 좋겠다.
 공원하기에는 공간이 너무 협소하지 않은가?

'대상지-옥수동 계단 공간'

주택 소유주만 찬성한다면 현재의 설계안에 동의한다.

④ 2차 설계안 작성

■ 대상지 1 - 옥수동의 공터

1차 설계안의 내용을 유지하되, 스탠드형 계단을 입구부분에 집중시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변형한다. 암반부분을 비롯한 녹지대부분은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는 정도를 확보하여 이용면적을 넓히도록 한다. 주변의 건물과 식재한 나무의 그늘이 있고 대상지의 규모가 크지 않으므로, 별도의 그늘을 위한 시설물은 배제하도록 한다. 최소한의 시설물을 설치하되, 마을의 성격을 부여하는 조형성이 가미된 시계탑 같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지 않는 시설물을 배치하여 주변공간의 성격을 부여할 수 있다.

주변 주택 소재와 같은 적벽돌을 사용하여 식재대를 설치하고, 바닥포장은 기존 도로와 색조가 같은 석재타일을 사용하며, 연식목재벤치를 식재대에 연결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입구부분의 작은 삼각형모양의 공간에 시계탑이나 현웃수거함을 설치하여 자투리 공간에 기능을 부여할 수 있다.

■ 대상지 2 - 옥수동의 계단

1차 설계안을 바탕으로 하되, 계단참의 일부를 확장하는 개념을 발전시켜 계단참의 포장에 변화를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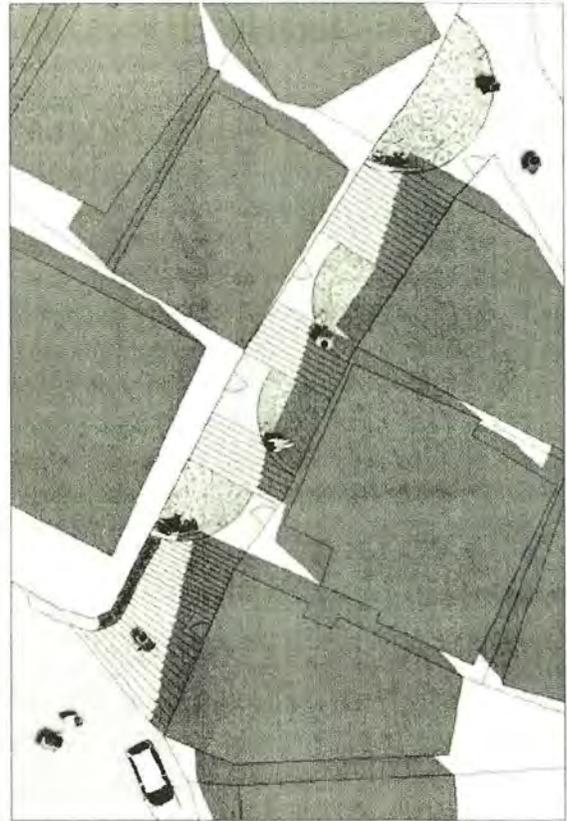
입면상의 변화뿐만 아니라 평면상에도 변화를 주어 지나가는 공간이 아닌 머물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인식이 가능토록 한다.

지나다가 잠시 앉아서 쉴 수 있고 이야기하는 공간이 되며, 앞만 보며 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나마 고개를 옆으로 돌릴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공간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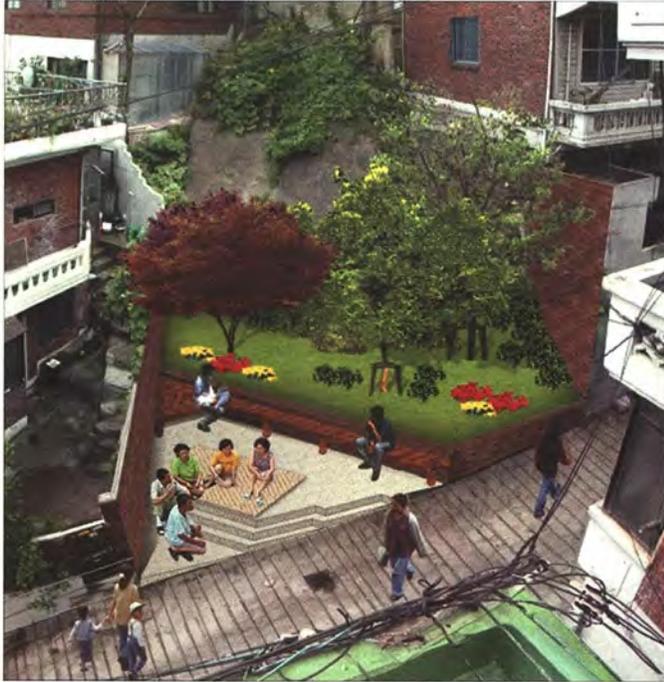
공간 개념을 보여주는 시뮬레이션에서의 파란 부분은 계단에 덧붙여지는 부분이고, 초록색의 부분은 여유공간을 만들어내는 구조체이며, 붉은 색의 부분은 머물수 있는 영역으로 변화하는 계단참의 부분을 의미한다. 이 세 가지가 만들어내는 최종적인 모습은 보라색으로 나타내진 사람들의 여러 가지 행태이다.

구조체와 포장 재료는 계단과 재질과 맞춰서 콘크리트 소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포장을 다른 공간감을 부여하기 위해 타설된 콘크리트 위에 손바닥 그림이나 글씨와 같은 패턴을 연출하여 재미를 줄 수 있다.

계단의 하단 부 주택과 인접해서 왼쪽으로 벽에 붙여 작은 화단을 만들고 넝쿨 식물을 심는다.



대상지 2-옥수동의 계단 평면도



대상지1-옥수동의 공터 평면도



대상지1-옥수동의 공터 3차원 사진합성 시물레이션



대상지2-옥수동의계단 공간 설계 개념도

대상지2-옥수동의 계단 공간 3차원 사진합성 시물레이션

⑤ 공사비 산정

■ 옥수동 번터

구분	단위	수량 및 규격	재료 및 비고	공사비(원)
전체면적	m ²	124.00	암반부분 포함면적	
포장	m ²	24.00	석재타일	1,200,000
식재공간	m ²	100	식재공간 경계 적벽돌 마감	900,000
	mm	(식재공간 경계) 11,500×800		
목재 벤치	m ²	7,000×500×400	미송각재마감	1,000,000
식재	잔디	m ²	45.93	200,000
	홍단풍	주	1	85,000
	산벚나무	주	1	110,000
	느티나무	주	1	70,000
	산철쭉	주	15	9주(1m ² 당) 75,000
	진달래	주	25	16주(1m ² 당) 120,000
	조팝나무(동근형)	주	12	9주(1m ² 당) 73,000
	옥잠화	본	100	24-64본(1m ² 당) 320,000
상록패랭이	본	150	24-64본(1m ² 당) 310,000	
지반공사			폐기물 처리 포함	5,000,000
총계		7,000×500×400	미송각재마감	9,463,000

■ 옥수동 계단

구분	단위	규격	재료 및 비고	공사비(원)	
전체면적	m ²	53.57			
테라스 1	전체 포장	m ²	21.29	콘크리트	2,100,000
	벽체	mm	6,500×400		
	돌출부 면적	m ²	0.71		
테라스 2	콘크리트포장	m ²	12.24	콘크리트	1,950,000
	벽체	mm	6,500×400		
	돌출부 면적	m ²	0.78		
테라스 3	콘크리트포장	m ²	9.96	콘크리트	1,920,000
	벽체	mm	6,500×400		
	돌출부 면적	m ²	0.76		
테라스 4	전체 면적	m ²	10.08	콘크리트	1,920,000
	벽체	mm	2.6		
	돌출부 면적	m ²	0.75		
플랜터	콘크리트 플랜터	m ²	0.67	콘크리트	80,000
색재	닝쿨장미	주	25	-	490,000
총계					8,460,000

(주: 자재비, 노무비, 경비, 포함)

2. 금호동의 주차장과 휴식 공간

1) 연구의 진행과정

① 주변 현황 및 대상지의 특성

본 부지는 금호동3가에 속하며, 금호터널 상부에 위치한다. 동측에는 두산 아파트가 입지하며 남측은 도로와 옥수터널이, 서측과 북측은 일반주택들이 모여 있다. 금호동 일대는 주변은 1970년대 후반의 AID차관 재개발과 1980년대의 합동 재개발이 이루어졌으나 대상지가 위치한 주변은 재건축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주택들은 노후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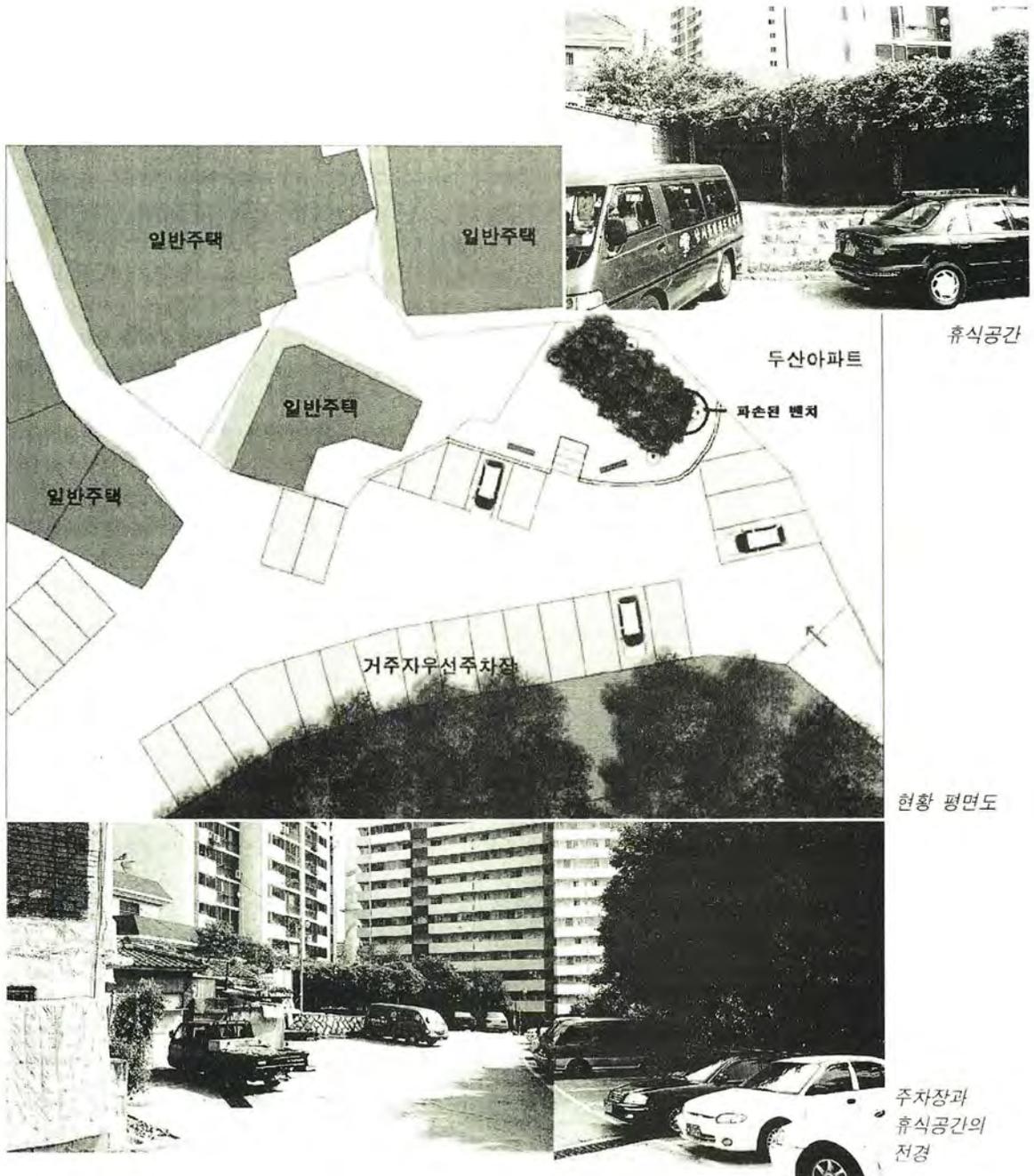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장이 부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차장 한 모퉁이 공간은 1m 높여져 콘크리트 가목 파골라 1개소와 벤치 10개소(파골라 밑 9개소 중 1개소 파손)의 시설물이 배치되어 있다. 주차장은 시간에 따른 이용자의 변화를 갖는다. 낮 시간에는 아이들의 놀이공간이 되기도 하고, 생활용품이나 식료품을 파는 차량이 와서 일시적인 장터가 연출되기도 한다. 레벨이 높은 휴식공간은 벤치 등의 시설물이 있기도 하지만 주차장과 분리되어 안전성이 보장되는 공간이다. 부지에서 남측에 신나무 및 가중나무로 구성된 수림이 울창하다.



동호 터널 위가 대상지임



휴식공간에서 바라본 주차장과 주변 경관



휴식공간

현황 평면도

주차장과 휴식공간의 전경

② 주민 특성

주변 주민들은 서민층으로 아직도 연탄을 난방으로 이용 하는 등 열악한 상황 속에 있다. 주부들도 직업을 갖고 있어 낮 동안 비어있는 집들도 많다. 한 집에 여러 가구가 살고 있고 직업이 없는 주부들은 낮 시간 동안 다른 자녀들도 살펴주는 등 주민들 간의 친분관계는 돈독하다.

그러나 대상지 주변에 주민들 간의 자치적인 조직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대상지는 이 지역의 광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문을 열고나서면 마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주민들은 대상지에서 비공식적인 만남들을 자주 갖고 있으며 일시적으로 형성되는 시장을 통해서도 잦은 대면 기회를 갖고 있다.

대상지 바로 옆의 두산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위화감을 갖고 있는 듯 했다. 담벼락에 쓰여진 “두산 꺼져라”라는 문구는 이를 증명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주민들과의 협력 방안

대부분의 주민들은 개선의 여지를 느끼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비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는 상태다. 주민인터뷰 및 면담 등을 통한 결과 주민 자체 조직이 없는 등 주민전체와의 간담회는 무리라고 판단되어 대상지에서 비공식적인 만남을 갖는 아주머니들과의 교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3) 대상지 조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1) 면담 조사

주민들은 대상지에 문제점을 여러 가지 지적하고 있다. 먼저, 야간에 불량 청소년들과 성인들의 음주를 지적하고 있는데 가로등의 증가나 경찰들의 야간 순찰로 문제를 줄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그리고 쓰레기 문제도 지적하고 있다.

차량과 어린이 놀이 충돌에 있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별 다른 놀이 공간이 없는 사정으로 표지판 설치 등으로 위험 요소를 감소하면 하는 바람들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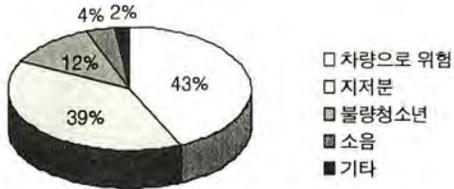
일시적 장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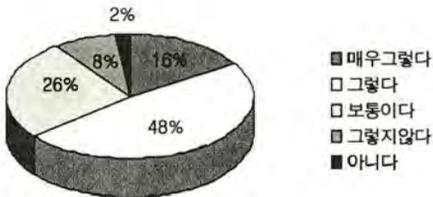
우연적 주민 모임

② 설문 조사 조사일자: 7월 피조사지수 남 28 여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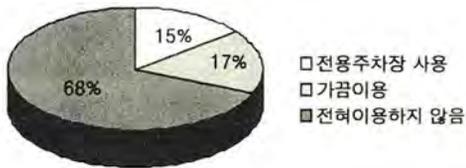
대상지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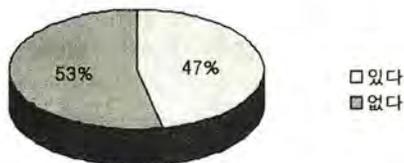
자동차로인해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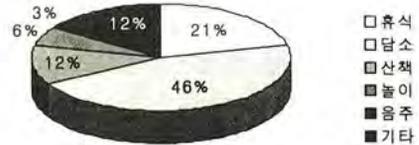
거주자용 전용주차의 사용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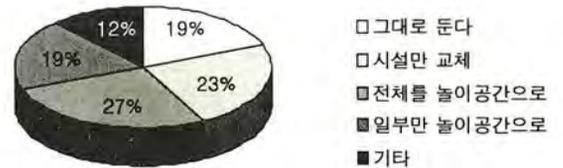
주차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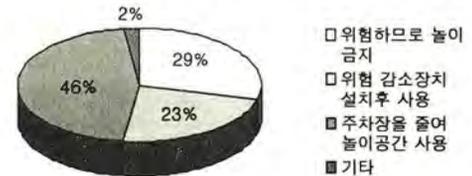
이용이유



휴식공간 변경



주차장 변경 정도



휴식공간의 관리 상태

③ “어린이가 바라보는 공터”



- 장소: 대상지내
- 일자: 8월 20일, 21일
- 진행 시간: 1시간 20분
- 대상: 옥수 1동에 있는 ‘동호 엘리트’학원 학생들과 대상지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들
- 준비자료: 일회용 사진기, 사진 찍는 내용에 대한 설명들
- 진행 과정

먼저, 어린이들에게 준비해간 일회용 사진기와 문건-어떤 내용들을 사진으로 찍어야 하는가에 대한-를 나누어 주고 사진 찍는 방법과 문건 내용을 설명. 어린이들이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갖도록 놀이를 유도하였다.

우리 동네 공터에서 사진 찍기!
우리가 노는 장소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지겨운지
여기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는지 알아봅시다.

- 여러분은 우리 동네 공터에서 무엇하고 놀죠? 자전거 타기, 낚시, 낚시, 공놀이 그리고 무엇 하고 놀까요? -이런걸 공터 어디에서 할까요?
- 현재 공터에서 놀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어디에서 뭐 하고 놀고 있는지 사진으로 한번 찍어 보세요?
- 우리 동네 공터에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 뭐가 있을까요? 사진 한 장!
- 우리 동네 공터의 가장 문제는 뭐예요? 사진으로 한 장!
- 우리 동네 공터에서 없어 졌으면 좋을 것 뭐예요? 사진!!
- 우리 동네 공터에서 개일 지겨운 곳은 어디예요? 사진!
- 그 다음 지겨운 곳은 어디예요? 한번 찍어 볼까요!
- 우리 동네 공터는 어디를 어떻게 바꿔었으면 좋을까요?
-어디를 바꿀까요? 한번 찍어 보세요!
- 우리 동네 공터에 어떤 게 더 있으면 좋을까요? 사진,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걸 어디에 놓으면 좋을까요? 사진 한 장 찍!

④ “이렇게 바꿔주세요”

- 장소: 대상지내
- 일자: 9월 3일
- 진행 시간: 1시간 20분
- 대상: 옥수 1동에 있는 ‘동호 엘리트’학원 학생들과 대상지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들
- 준비자료: 대상지 지도
- 진행 과정

대상지 지도를 먼저 보여주어 공간감을 익히게 한 후, 3조로 나누어 대상지를 그리고 그 위에 자신들이 찍은 사진을 붙이고 설명을 쓰도록 하였다.

주차장과 공터는 어떻게 생겼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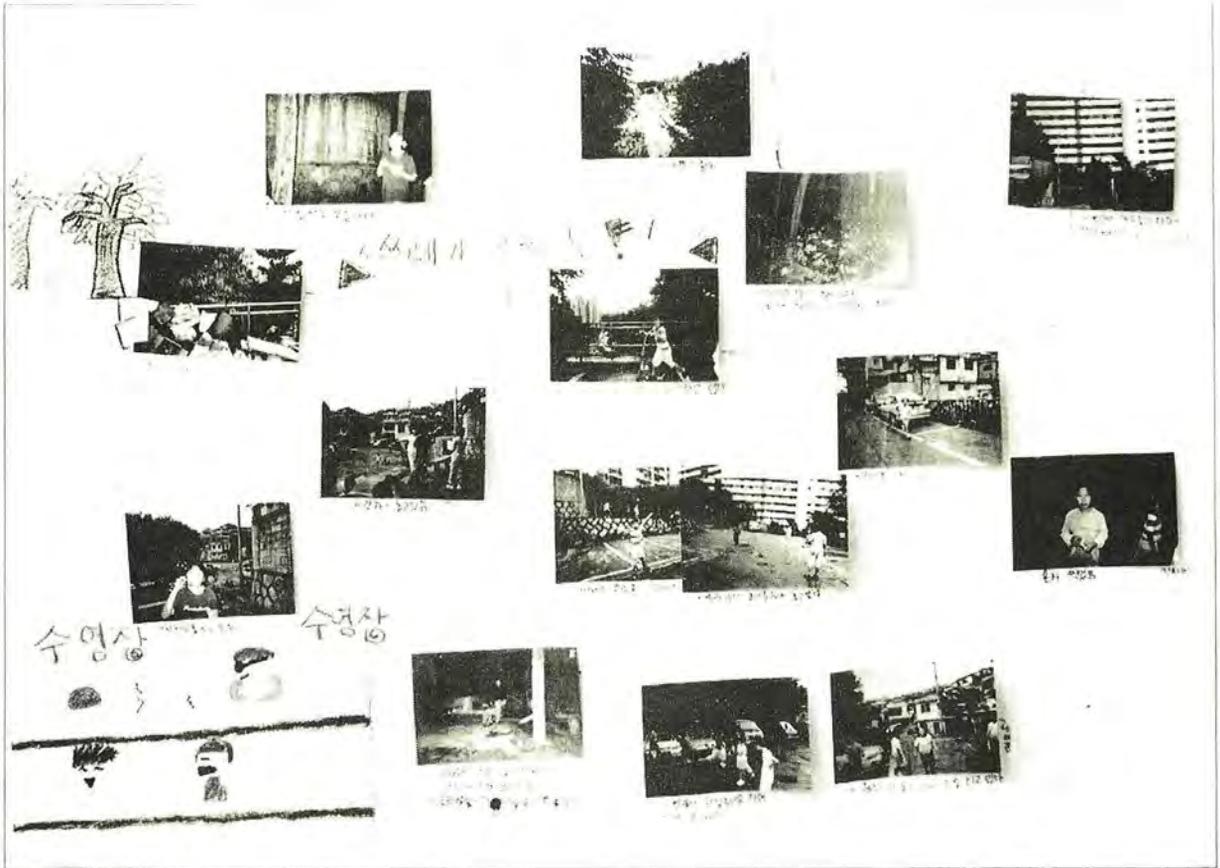
우리가 찍은 사진 찍기!



사진에 대한 설명 쓰기



■ 3조 그림



· 브레이크 타는중.... 안네?



· 뛰러가지 놀이들하며 높고있다.



· 굳이가 강하다 · 태강이 좋다.
· 폭염을 버리었다

4) 설계안 작성 (설계 진행: 신근혜)

① 설계 방향 및 내용

■ 설계 방향

대상지의 상황은 재밌는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주차공간과 파고라 공간의 차이로 공간의 구획이 확실하다. 또한 주차공간은 앞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시간대별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우리 마을의 공동주차공간은 어느덧 여러 가지의 기능을 가진 공간으로 연출되고 있다.

파고라 공간은 현재의 상황으로도 그늘을 제공해주며 벤치도 설치되어 있으며 주차장 안쪽에 안락한 곳에 자리잡고 있다. 주차장이 시간대별로 아이들의 놀이터가 될 수도 있고 동네의 장이 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봐서 파고라 공간과 주차장 부분의 단 차이를 다소 낮추거나 스텐드형 계단을 설치하여 공간의 분할이 아닌 연결을 꾀한다. 주차장에서 놀던 아이들은 파고라에 들어가서 쉴 수도 있고 어린이의 부모들은 파고라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 볼 수도 있다.

주차장의 바닥은 단순히 주차를 위한 바닥으로 뿐 아니라 자유로운 그림을 그려 아이들과 주민들에게 시각적인 효과를 준다.

■ 설계 내용

주차장이라는 본 대상지의 특성과 휴식공간이 가장 충돌하는 부분은 휴식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 확보라는 데 주안점을 주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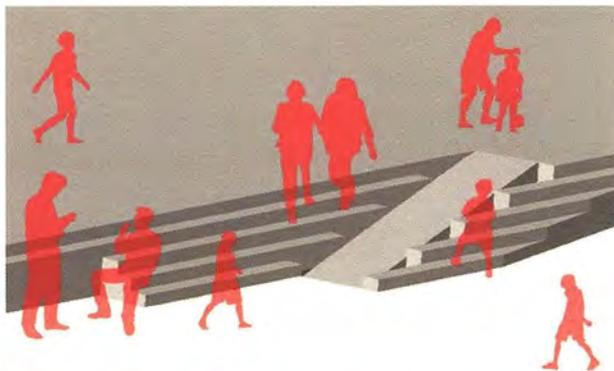
우선 차량이 진입하는 입구에 해당하는 부분의 바닥에 교통표지판과 바닥그림 등을 패턴으로 넣어 휴식공간(특히 아이들의 놀이터)라는 영역성을 부여하도록 한다. 이는 계단으로 진입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이다. (바닥의 아이들이 노는 그림과 같이) 차량이 주차하는 부분도 몇몇 부분에 그림을 그려넣는 것 또한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휴식공간(혹은 놀이공간)으로 이용하려는 사람에게도 같은 효과를 주어 주차장임과 동시에 놀이터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할 것이다.

단 차이로 인해 분리의 성격이 강한 휴식공간의 경계부분을 스텐드와 램프를 사용하여 변화를 유도한다. 또한 상단부분의 포장은 고무매트, 모래, 목재데크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놀이와 행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부분 평면 참조) 파골라의 형태에 일부 변화를 주어 램프로 출입하는 사람들의 입구와 같은 느낌을 연출한다. 파골라의 등나무는 그대로 유지하되, 콘크리트 인조목 기둥부분에 다른 재료를 덧대는 등의 변화를 준다. (예로 콘크리트 손바닥 페인팅 블록) 파골라 하부의 벤치는 철거하고 새로 2인용과 1인용을 섞어서 설치한다.



휴식·놀이 공간 설계 평면도



휴식·놀이 공간 입면 설계 개념도



주차공간 및 휴식공간 설계 평면도

③ 공사비 산출

구분	단위	수량	규격	재료 및 비고	공사비(원)	
전체면적	m ²	127.13				
바닥포장	우드블럭	m ²	19.52		우드블럭	1,700,000
	고무매트	m ²	19.97		어린이놀이터매트(적색)	1,600,000
시설물	1인용 벤치	개소	3	700×500×400	미송각재 마감	240,000
	2인용 벤치	개소	2	1800×500×400	미송각재 마감	360,000
계단 및 램프	계단	m ²	12.32		목제침목	1,800,000
	램프	m ²	4.23		콘크리트	330,000
식재	산철쭉	주	25	9주(1m ² 당)		125,000
	진달래	주	40	16주(1m ² 당)		190,000
	비비추	본	100	24-64본(1m ² 당)		423,000
	옥잠화	본	100	24-64본(1m ² 당)		316,000
	상록패랭이	본	150	24-64본(1m ² 당)		310,000
	맥문동	본	100	24-64본(1m ² 당)		90,000
총					7,724,000	

(주: 자재비, 노무비, 경비 포함)

3. 원서동의 공터

(총 진행: 걷고 싶은 도시민들기 시민연대<도시연대>)

1) 대상지 현황

(1) 주변 현황 및 대상지의 특성

행정동 상으로는 종로구 가회동 20-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법정동으로는 원서동으로 조선시대에는 원골로 불리었으며, 개천인 물길을 따라 형성된 곳이다.

대상지역인 원서동 20번지는 창경궁 담을 따라 형성된 곳으로 조선시대에는 궁중 나인들과 내시 등이 주로 살았으며, 문화재관리국(현 문화재청) 소유의 국유지였으나 한국전쟁 때 난민들이 무단 점유하면서 불량주택과 소규모 한옥이 들어서게 된다. 1992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가 지정되면서부터 4-5층의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건설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원서동 20번지는 약 5m폭원의 골목길에 20여 세대가 마주보고 있으며, 대부분 부지가 협소하고 낙후된 건물군을 이루고 있다. 한평공원 대상지는 원서동 20번지 진입로 입구로서 골목길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1960년대까지 공동우물이 있던 곳이다.

1980년대에 줌도둑 및 불량배로부터 동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대상지인 도로부지에 방범초소를 건립하였던 곳이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방범체계 변화 및 이동파출소 등으로 방범초소 기능이 상실되었으며, 현재에는 모래함 적재 및 쓰레기 등으로 방치된 상태이다.

(2) 주민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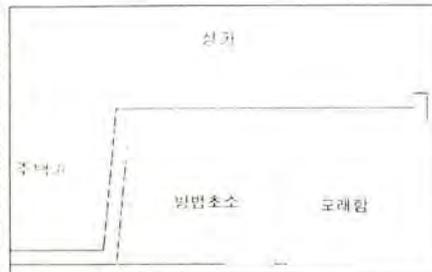
주민들은 저소득층으로 10년 이상 지역에 거주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주민들의 이주율은 높지 않다.



대상지 전경



대상지 전경



대상지 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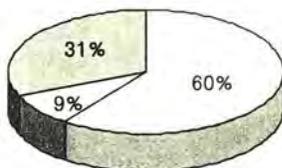
③ 주민들의 외부 공간에 대한 활용 정도/만족도 /요구사항

조사 방법 - 설문

조사 일시 - 2002년 9월 20일, 2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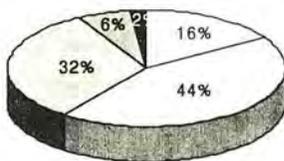
조사대상 - 남-18명 여-32명

주차장소



□ 집앞골목
□ 유료주차장
□ 기타

휴게공간이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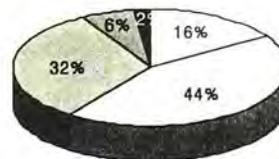
□ 매우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나무가 부족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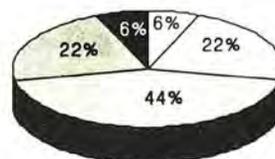
□ 매우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지동차로 인해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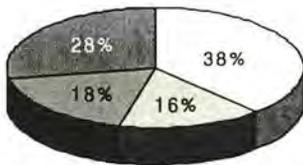
□ 매우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동네가 지저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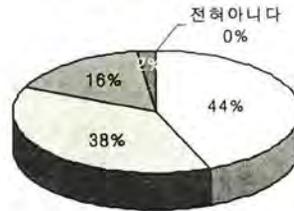
□ 매우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길에서 담소를 나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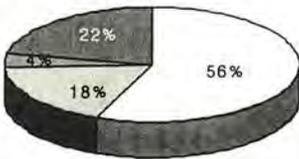
- 전혀없다
- 한달에 한번
- 한달에 3, 4번
- 1주일에 2번 이상

담소, 휴게공간이 필요



- 매우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아니다
- 전혀아니다

길가에서 쉰다



- 전혀없다
- 한달에 한번
- 한달에 3, 4번
- 1주일에 2번 이상

2) 주민과의 협력방안

본 대상지의 경우, 시민단체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이하 도시연대)’와 주민의 리더격인 통장의 지속적인 협력 속에서 진행되어졌다.

주민인터뷰 및 면담 등을 통한 결과 주민전체와의 간담회는 무리라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통장을 중심으로 공식 면담을 진행하였다.

3) 행정과의 관계

가회동사무소를 중심으로 도시연대와 동장과의 면담이 진행되었다. 한평공원 대상지가 시유지임으로 행정적인 처리 절차에 대한 도움이 필요했고 가회동사무소의 협조를 얻어 한평공원 조성에 따른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었다.

가장 주민과 밀접한 행정기관인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와 주민간이 긴밀한 관계 설정을 통하여 주민참여 방안에서 행정의 역할 모색이 이루어졌고 서울시의 북촌 가꾸기 사업이 ‘한옥을 중심으로 한’ 점적인 측면이 강하나, 골목길 입구를 중심으로 한 선적인 정비를 통해 면적인 가꾸기 사업이 진행될 필요성 공유되었다.

4) 대상지 조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① 주민과의 면담

초기 준비과정에서 주민과의 면담은 외부공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1차 면담을 통해 한평공원 대상지에 대한 정비 필요성을 동의 받았다.

1차 면담에서 대상지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은 서울시의 북촌지역 사업계획이 진행중이므로, 한평공원 조성은 비용이 들지 않는 방안을 찾는 것이었다.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휴식공간 정도의 조성 필요, 마을버스 정류장이 가까움으로 마을버스 정류장으로서의 역할 부여 등

2차 면담에서는 1차 면담 결과를 중심으로 설계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2차 면담 이후 통장이 중심이 되어 주민들에게 설계안에 대해 설명하고 관심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주민들과의 개별적인 면담을 통해서 볼때, 대부분의 주민들은 한평공원 부지가 매우 지지분하다고 느끼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비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는 상태이며, 또한 스스로가 최소한의 청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 생각도 없었음이다. 이는 주민간의 교류가 개별화되어 있으며 한편으로는 저소득으로 인한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 부족이라고 판단된다.

② 우리동네 지도 그리기

가회동 거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우리동네 지도그리기 및 한평공원 대상지 답사등을 통해 '우리동네'에 대한 어린이들의 의견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였다.

집단화되기 힘든 주민의 경우와 달리 어린이들은 집단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용이하였으며, 또한 어린이들에게 쾌적한 동네 만들기라는 취지로 일반적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나가려는 과정이었다.

■ 일시: 9월 24일 오후 2시 - 4시

■ 장소: 가회동 수녀원

■ 대상: 재동초등학교 어린이 15명

■ 진행방식

대형 지도를 놓고, 조별로 진행자의 질문에 따라 지도에 그림 및 글씨를 써 넣으면서 동네에 대한 요구사항 정리

■ 진행내용

우리동네의 좋은 점과 나쁜 점, 내가 주로 노는 장소, 사람들이 주로 모이는 장소, 지지분한 장소, 놀이공간으로 정비가 필요한 장소, 위험한 장소, 원서동 한평공원 조성 대상지에 대한 느낌 등



우리동네 지도그리기 1



우리동네 지도그리기 2



5) 설계안 작성 (설계 진행: 조석만)

① 설계 방향 및 설계 내용

● 설계 방향

본 대상지는 가회동으로 들어가는 입구부분에 해당하는 길목에 위치한다. 옛 마을의 개념으로 보면 마을입구의 마을 마당의 위치로 볼 수도 있다. 현재상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금은 창고와 쓰레기들로 방치되어 있는 마을입구의 모습을 새로운 공간으로 만들기를 모색한다.

현재 창고로 쓰이고 있는 방법초소는 완전철거와 부분철거의 방법을 생각해 본다. 완전철거의 형식은 기존의 흔적을 없애고 공간을 다소 넓게 쓸 수 있다는 의미에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부분철거의 방법은 방법초소의 일부분을 철거하여 나머지 부분은 다른 공간으로 활용한다. 이것은 과거에 방법초소가 현재는 주민들의 생활의 장으로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다.

대상지의 우측에는 공장으로 쓰고 있는 상가건물이 있다. 이 상가의 옆에 위치한 대상지에는 도시가스관이 노출되어 있다. 계획에서는 이 노출관을 최대한 시각적으로 감추고 접근성도 피한다.

이곳은 주민들의 담소의 공간, 지나가다가 잠시 쉬는 공간, 할머니들의 휴식 공간, 흡연 공간등 다양한 모습을 연출할 수 있다.

● 설계 내용

계획의 처음단계는 방법초소의 부분철거의 방법을 생각해 본다. 아래의 대안1과 대안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법초소는 부분적으로 철거되고 안쪽 공간에 벤치를 설치하여 외부의 공간이면서 내부의 공간이며 내부의 공간이면서 외부적인 공간이 계획된다. 요시노부 아시하라가 <건축의 외부공간>에서 제시한 내적이면서 외적인 공간이 만들어 진다.

여기에서 부분철거에 두 가지의 방법이 제시된다. 대안1에서는 방법초소의 앞쪽부분을 완전 개방하여 공간의 개방감을 주며 대안2에서는 앞쪽을 일부 막아서 나무 식재를 함으로 다소 시각적 차단효과를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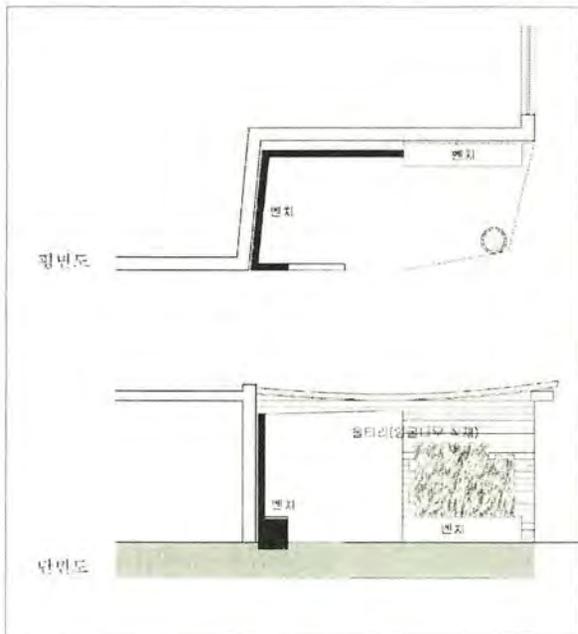
옆 건물과의 인접 벽에는 덩굴 나무식재를 위해 울타리를 설치하고 덩굴 나무식재 후에 앞에 벤치를 설치한다.

부분 철거하여 남겨진 부분은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게 할 수 있다. 가회동이라는 마을의 성격 분위기에 맞는 그림이 될 수도 있고 눈에 잘 띄는 그림이 될 수도 있겠다.

② 1차 설계안

■ 대안 1

평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분철거 된 안쪽 공간은 벤치를 설치하여 구조적 안정성을 꾀한다. 단면에서는 옆 상가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담쟁이 덩굴나무를 식재한다. 부분 철거하고 남은 방범초소 잔해에 그림을 그려서 새로운 공간의 느낌을 전달하고 있다.



대안 1

■ 대안 2

대안 1과 다른 점은 크게 방범초소의 남은 부분을 활용하여 나무를 식재하는 것이다. 이것은 시각적인 차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계획공간의 중심부 역할을 할 수 있다.

옆 건물과의 인접 벽에는 덩굴 나무식재를 위해 울타리를 설치하고 덩굴 나무식재 후 앞에 벤치를 설치한다. 대안 1과 마찬가지로 방범초소의 남겨진 부분은 자유로이 그림을 그린다.



대안 2



대안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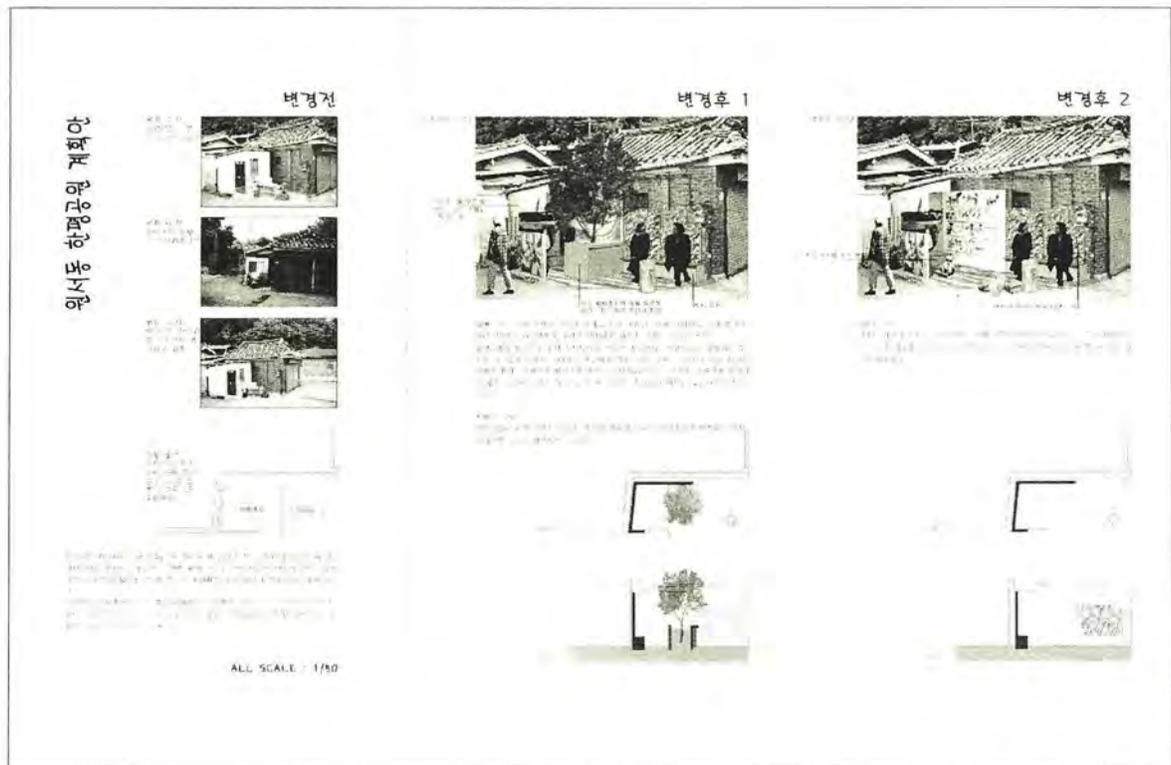
대안 2

③ 1차 설계 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면담)

주민들의 면담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기술하면, 우선 저비용과 관리의 용이함이 가장 중심이 되었다.

"1차 설계안의 내용대로 가면 비용이 얼마나 들 수 있는지, 벽화는 이왕이면 원서동이라는 이미지와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 나무가 심겨질 경우, 절 자랄 수 있는 것인지. 모래함이나 필요할 텐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가능한한 비용이 조금 들었으면 한다. 2, 3년 후 주변 건물들이 철거될 수도 있으므로 최소한의 시설을 설치 했으면 좋겠다. 분위기가 밝았으면 한다."

다들 현재의 쓰레기장으로 변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지 바꾼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다.



주민 의견 수렴용 패널

④ 2차 설계안 작성

■ 기존 벽 부분적 유지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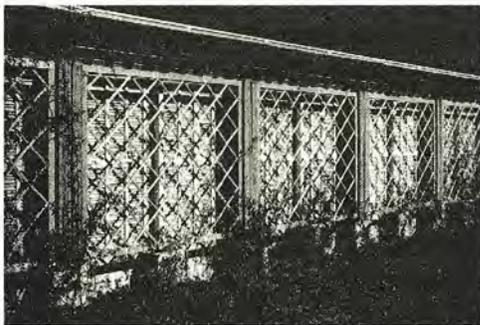
기존 벽의 일부분만 남길 경우 구조적으로 위험이 있다는 조언을 받아 기존 건물은 모두 허물기로 했다. 벽을 허문 자리는 나무 헨스를 쳐서 시각적으로 차단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의자 위치와 화단 위치의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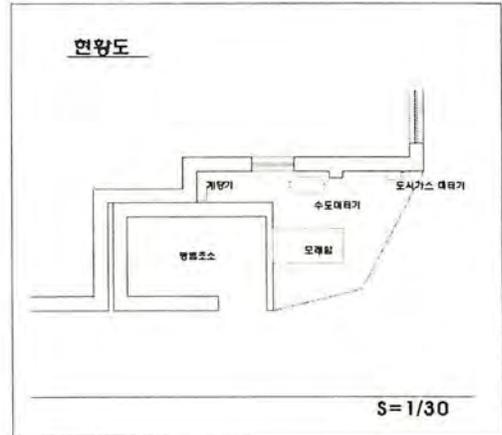
도시가스 미터기 수도 미터기 위치로 인해 의자 위치와 화단의 위치를 변경하였다. 좌측의 의자는 깊이를 넓게 두어 평상과 인접한 건물에 사람들이 기댈 수 없도록, 평상같이 넓게 쓸 수 있도록 하였다.

■ 재료 선정

바닥과 화단은 모두 적벽돌을 사용함으로써 통일감을 갖도록 하였다. 또한 의자와 헨스는 나무로 작성하여 주변에 이질적이지 않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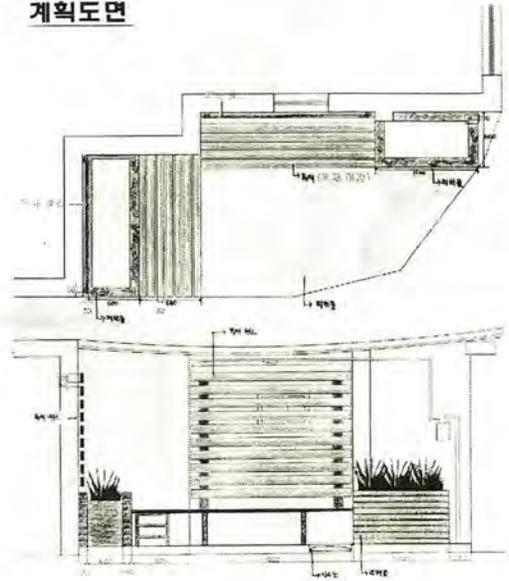


도입시설의 이미지-나무 헨스



보다 상세화한 도면 그러나 축량기계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많이 부정확

계획도면



S=1/20

치수, 재료를 구체화한 도면-그러나 현황도의 부정확으로 정확한 치수를 제시하기에는 역부족

6) 시공

11월 10일부터 11월 16일까지 일주일간 2차 설계안을 바탕으로, 종합 건설업체인 (주) 사람과 공간 종합건설에서 시공 원래 일정은 11월 3일 공사 시작이었으나, 인접 상가에서 방범초소를 창고로 이용하고 있어 내용물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 1주일의 필요하다고 하여 연기

■ 공사 과정 진행 일지

11/10-일요일-첫째 날 : 아침 8시에 공사 시작 방범 초소로 쓰이던 건물 철거 12시경 준비한 떡을 고기를 주민들한테 돌리면서 공사에 대한 관심 촉구 원래 계획은 바닥 포장까지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음 3시 경 끝남.

대상지 옆집 주택의 할머니는 건물을 철거하는 충격으로 자신의 건물에 해가 가지 않을까 연신 감아지 한 마리를 끌고 다니시면서 진소리를 하신다. 앞집 개축 때문에 드나드는 화물차로 벽이 금이 갔다고 하시면서, 대상지 건너편의 슈퍼마켓 여주인은 대상지를 공원화 하는 것을 너무 마음에 안 들어 한다 누가 관리 할 것이냐고 돈 들어서 그런 일을 왜 하느냐고

11/11-월요일-둘째 날 : 대상지의 치수를 다시 정확하게 재고, 필요 재료와 물량을 다시 산출하고 공사비 산정 붉은 벽돌을 사용할 경우 도로와 단차이가 많이 생길 것이 우려되어 바닥포장재를 붉은 벽돌에서 석재 타일로 변경함 다양한 석재 타일의 부족으로 여러 분홍색의 석재 타일을 구입 목재를 구하기가 힘들다고 보았는데, 의외로 저렴한 가격에 구입 벽돌 업체에서도 다양한 색상이 없어서 처음 의도보다 여러 색의 벽돌을 구입하게 됨.

나무 휨스의 형태는 가로선과 세로선이 함께 혹은 가로선이라도 조밀하게 짜여진 것을 원했으나 제작비가 너무 비싸다고 함 석재 타일은 너무 밝아 안정감이 적을 것으로 염려됨

11/12-화요일-셋째 날 건물 철거로 드러난 이웃집의 벽을 흰색



첫째날

으로 칠함 / 벽돌 화단 쌓음

이웃집 할머니는 오늘도 7시부터 강아지 한 마리를 끌고 나와 간섭을 하신다. 할머니 벽에 흰 칠을 해드리자 너무 좋아하신다. 게다가 화단을 쌓으면서 할머니 벽에 방수처리를 해드렸다. 정말 좋아하신다.

음료를 사러 슈퍼마켓에 들어갔다. 슈퍼마켓 여주인은 이웃 주민 아주머니에게 공원화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다. 슈퍼마켓 여주인이 고개를 띠데로 돌린 순간, 이웃 주민 아주머니는 나를 향해 눈을 찡긋한다.

11/13 수요일 네셋째 날 : 칠물을 다루는 업자를 불러, 목재 웬스 틀을 위한 알루미늄 골격과 의자를 위한 알루미늄 골격의 치수를 잴. 벽의 칠을 하게 됨 | 시공자는 벽돌색과 같은 페인트와 흰색 페인트를 구입해 음. 시공자는 붉은 색을 칠하려 하였으나 벽돌색과 같은 페인트 일 경우 바닥이 너무 흐려서 전체적으로 부조화를 이룰 것 같아 흰색으로 결정.

할머니 큰 아들이 오후경에 나타났다. 공사 이후 할머니 건물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서 보상을 받느냐고 따진다. 이전에 한번도 보이지 않았었다. 할머니가 나서서 아들을 말린다. 좋은 일 하는데 왜 그러냐고. 아들이 들어간 후 다시 강아지를 끌고 나와 위로를 해주신다.

11/14 목요일 다섯째 날 : 바닥 포장

할머니가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나와 계신다. 감리자다. 우리가 점심을 먹으러 가자 본인도 잠깐 쉬어야겠다고 들어가신다. 춥다고 자신의 집에서 좀 쉬라고 하신다.

음료를 사러 슈퍼마켓을 다시 찾았다. 여주인은 추운데 왜 매일 나오냐고 한다. 공사가 꼼꼼히 되어야 할 것 같아서 나온다고 하니 웃을 잡 입고 나오라고 한다.

11/15 금요일 여섯째 날 : 나무 가공과 벽에 목재 웬스를 치고 맞추어진 알루미늄 골격에 나무를 놓아서 의자를 완성. | 공사 완료

공사가 길어지자 지나는 사람들이 한미디씩 한다. 그 작은 걸 뭐 그리 오래 하느냐고. 근데 포장을 새로 하니 깨끗해 보인다고 한다.



첫째날 완성-왼쪽의 할머니



셋째날



넷째날

11/16-일곱째날-토요일 : 12시에 주민들이 모여 완공 기념자리를 갖음 | 가회동 동장, 새마을회 회장, 노인정 회장, 윤병훈장인(오죽공방), 권무석공장(활), 남행자 통장, 가회동 통장 모임 회장, 고완기(전 서울시 문화과), 자율방범대, 기타 주민들이 모임

■준공날 모인 주민들의 의견

공원 이름: '빨래골 쉼터'로 하자라는 것이 우세하여 이것으로 결정.

부지가 모퉁이에 위치하여 차량의 접근이 걱정 : 이동식 원형 화분을 놓아 차량의 진입을 막자 / 턱을 높여서 차량의 진입을 막자 / 돌과 같은 간이 이동식 블라드를 설치하여 벤치겸용으로 사용하자 / 벤치겸용 제설함을 설치하여 차량진입도 막고 겨울에 활용하는 등 다목적의 시설물 제안

▶ 동사무소 측과 주민들이 스스로 설치하자고 이야기 함

전문가/ 시민단체 측의 요구 : 이후 공간의 변형 시 설계자와 상의하고 변경할 것을 주민과 이야기 했으면 함 / 청소, 쓰레기 처리 등의 문제들을 주민들이 스스로 협조하며 공간을 관리하여야 함

앞으로 공간을 꾸미기 위한 재료들의 구입 : 동사무소에서 꽃양배추 같은 화분과 제설함을 지원

공간이 소수 개인에 의한 점유 : 상업적인 이용이 불가함을 홍보하기 위한 안내문의 설치를 제안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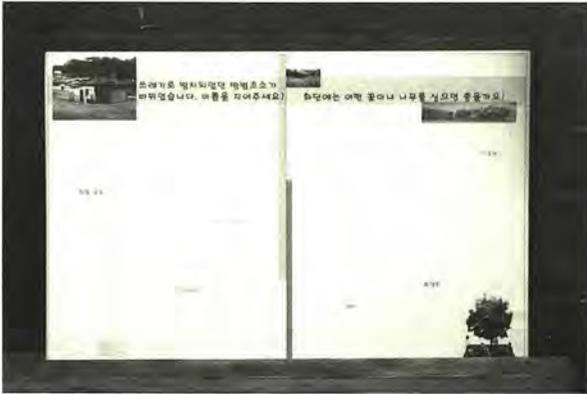
음식 준비와 할머니



마지막날의 인근 주민들

7) 공사 이후

■ 공원 이름과 수목에 대한 질문 패널을 일주일간 설치



공원 이름을 지어 주세요!

빨래골 쉼터, 한평 반 쉼터, 빨래터의 편안한 쉼터, 연인 쉼터, 버스 정류장 쉼터, 화목 쉼터, 자연으로 되살아나는 쉼터, 원서동 쉼터, 푸르른 쉼터, 작은 공원

화단에 무슨 나무를 심을까요?

해바라기, 진달래, 백합, 목련, 작은 소나무, 진달래나 회양목 하세요 제일 보기 좋음,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 아카시아, 무궁화, 개나리, 장비

■ 주민들의 반응 및 주민들의 평가

■ 날씨가 추운 관계로 앉아서 휴식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 지지분하던 곳이 깨끗하게 정비되었다는 것에 대부분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관리를 걱정하고 있었다. 현재까지 몇몇 주민들이 스스로 휴지와 담배꽂이를 줌 등 스스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 벤치 사건 : 벤치를 바닥에 고정시킬 수 있는 장치물을 달기 위해 벤치를 잠시 다른 곳으로 옮겼을 때, 도시연대에는 전화가 몰렸다. 공원의 벤치가 없어졌다고 통장과 할머니가 신고를 해온 것이다. 동네를 헤메면서 벤치를 찾아다녔다.

■ 웬스 부서짐 사건: 공사 이후 일주일 후인 11월 17일 방문했을 때, 벽에 세운 웬스의 나무 하나가 부서져 있었다. 웬스를 고정하고 있는 철제도 부서진 것을 보면 누가 발로 찬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본 한 주민은 공원 이름과 안내문을 달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준다.

■ 주민들 스스로가 휴지도 줌, 봄엔 꽃도 심을 계획도 하고, 동사무소에서는 가로등 설치를 준비 중이다. 지속되길 바란다. 그래서 끊임없는 관찰이 필요하다. 내년에는 북촌에서 2-3군데 한 평 공원 조성사업을 다시 시작하자는 동장의 이야기에 희망을 걸어본다.

■ 공사비 산정

구분	단위	규격 및 수량	재료	공사비(원)
전체 면적	m ²	7.2m ²		
포장	m ²	6.28m ²	석재타일	700,000
목재 벤치 (L<가로>× W<세로> × H<높이>)	mm	① 800×500×400	상부: 미송각재 마감 받침: 알루미늄	550,000
		② 1,300×1200×400	상부: 미송각재 마감 받침: 알루미늄	
목재 웬스	mm	① 1,300×1,200	미송각재 마감 지지대: 알루미늄	550,000
		② 1,500×1,300	미송각재 마감 지지대: 알루미늄	
화단	mm	① 900×500×700	적벽돌	500,000
		② 1,300×600×400	적벽돌	
벽면	m ²	3m ²	시멘트 마감, 백색 페인트	200,000
건축폐기물처리		-	-	500,000
총				3,000,000

(주 자재비, 노무비, 경비, 포함)

4. 전통동의 개인 상가 내 공간

1) 대상지의 현황

① 주변 현황 및 대상지의 특성

대상지는 동대문구 전농동 293-96번지 상가 앞의 공지이다. 대상지 북쪽으로는 회기역이 위치하고 있고 남쪽으로는 서울시립대가 위치해 있다. 대상지가 위치한 지역은 다세대 주택가에 있는 작은 근린상업시설지역 쌀가게, 과일가게, 목욕탕, 비디오 대여점이 주변에 위치한다. 대상지는 서울 시립대로 이어지는 보행길에 위치해 있다.

대상지 주변 일대는 근린 생활 보조 상가들로 일반 주민들 이용이 많다. 세탁소와 슈퍼마켓, 비디오 가게, 과일 가게 등 길가에 상가들이 몰려있다. 주로 이 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노인층과 어린이들이다.

건물 주인 할아버지 부동산을 운용하기도 함 건물 앞을 '한 평 공원' 대상으로 허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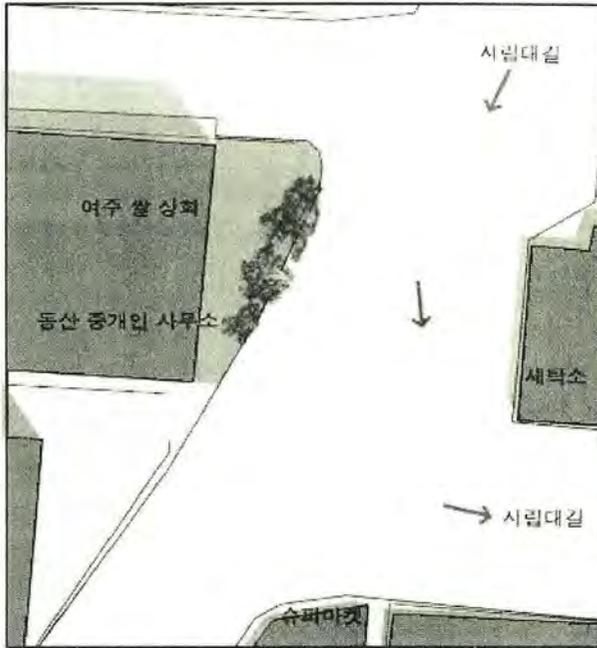


대상지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좌측에 공인 중개사가 있다. 현재, 앞쪽으로 주차를 막기 위해 화분과 주차방지 간막이가 설치되어 있다. 부동산, 쌀 상회로 주민들이 이용이 많고 특히나 부동산의 경우 자취방이나 하숙 집을 구하는 시립대생의 이용이 빈번하며 학생들 사이에 주인 할아버지에 대한 평판이 좋다.

쌀 상회 아저씨는 50대 초반으로 같은 연배의 주민들이 자주 찾아 쌀 상회 앞 공간은 주민들의 휴식, 담소 공간으로 활용되어지고 있다.

대상지 전경





대상지 평면



대상지 내부

② 주민들의 외부 공간 이용 현황과 만족도

대상지의 윗 쪽 골목에서 아이들이 모여서 놀이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골목에서 노인들이 쉬는 모습을 종종 보이지만 마땅히 쉴 자리가 없어 구석 모퉁이에 현 의자를 갖다 놓고 쉬는 것에 그치고 있다.

대상지가 위치한 길은 학생들의 보행길에 주가 되는 길이다. 또한 부동산의 좌측 편에 식당이 있어 학생들이 자주 이곳을 지나치게 된다.

낮의 시간에 이 길은 노인들과 아이들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노인들은 대상지의 공터에 자주 나와서 쉬었다 가며 아이들도 옆의 골목에서 놀곤 한다.

저녁때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붐비는 장소가 된다. 인근에 상가들이 분포하고 있어 주부들과 학생들이 주로 나와서 이용하는 길이 된다. 또한 주택가로 들어가는 길에 위치하고 있어 차량의 유동이 많은 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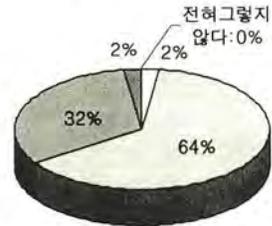
조사 방법: 설문 조사일자: 2002년 5월 피조사수: 남-13 여-30

동네가 지저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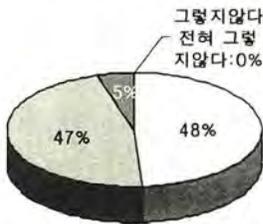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담소, 휴게공간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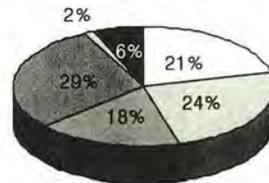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주차공간이 부족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담소를 나누는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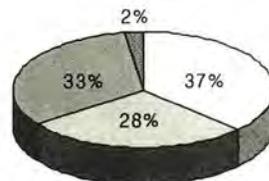
- 집 내부
- 상가 내부
- 베란다 및 마당
- 길위
- 기타
- 왕래가 없다

녹음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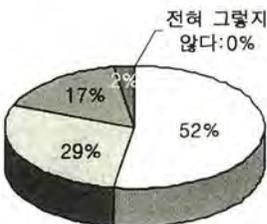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길에서 이웃들과 담소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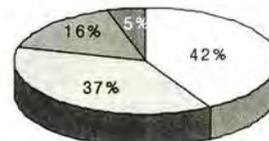
- 전혀없다
- 가끔한다
- 자주한다
- 매우 자주한다

자동차로 인한 위험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길에서 쉰다



- 전혀없다
- 가끔한다
- 자주한다
- 매우 자주한다

■ 우리 동네를 쾌적하게 하는 방안이나 기타

"하수도 냄새가 심하다. 도둑고양이가 많아서 줄여야 한다. 나무를 많이 심었으면, 꽃이나 나무를 심는다. 나무심기, 쓰레기 분리수거, 함께 모여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휴식공간이 필요하다. 아이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조그마한 휴식 공간 마련, 이웃과 쉴 수 있는 장소 확보, 가로가 좁고 자동차가 많다. 주차문제를 해결하면 좀더 쾌적한 동네가 될 것 같다. 깨끗하게 청소할 것, 적은 쉼터가 있을 것. 비둘기를 없애야한다. 가로등이 좀더 있으면, 집 앞 청소 깨끗이"

③ 주민 특성

이 지역은 집 주인들을 제외하고는 거주 기간은 길지 않은 듯 하다. 1995년 서울시립대 후문이 만들어지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가가 생기기 시작하였으나 큰 상권을 형성하고 있지는 않고 주택지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하숙이나 자취를 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으나 학생들은 주거 공간을 자주 바꾸고 있어 근린주거민이 되고 있는 실정은 아니다.

면담 조사 결과 주민들내 자치 조직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더더구나 대상지 소유주인 부동산 할아버지는 소속된 조직이 없었다. 주민들의 반사회는 한달에 한번 이루어지지만 참석이 저조하다고 한다. 동사무소에서 개최하는 윗놀이 대회 같은 행사는 가끔씩 있으나 자체적인 행사는 거의 없다고 한다.

2) 주민들과의 협력 방안

건물 주인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하는 주민들 간의 자발적 조직을 찾을 수 없어 주민들 조직과의 협력은 어려울 듯 보였고, 더욱이 본 대상지의 경우 사적 공간으로 소유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아 건물 주인 할아버지와 의 뜻을 면담을 통해 본 사업을 진행토록 하였다.

3) 대상지 조성 방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① 면담 조사 결과

건물 앞 공간을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는데 있어 문의를 드린 결과 흔쾌히 허락하셨고 추후에 사람들의 이용으로 인한 불편을 감수하실 수 있다고 하셨다. 다만, 손수 심으신 감나무를 없애지 않으시길 원하셨다.

현재 평탄하지 못한 바닥면을 평탄하게 했으면 하는 요구가 있었고 옆의 쌀가게의 경우 상품의 하차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이 있었다.

주변 상가 상인들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아주머니들은 대상지가 위치한 여수쌀상회에서, 아저씨들은 마을내 동진건축설비에서 주로 모여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다고 한다. 쌀집아주머니에 따르면 하루에 보통 5-6명 정도 모여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며 지낸다고 하신다. 대상지 개선에 있어서는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임대인이라 결정권이 없다고 적극적인 의견 개진은 없었다.

② “어떻게 변경될지를 미리 느껴 보기”

■ 일 시: 9월 30일 - 10월 5일

■ 장 소: 대상지내

■ 진행 방식: 간이 의자를 설치한 후 일주일간 모니터링 하였다. 이는 의자를 놓아야 하는 필요성이나 의자 배치의 적절한 위치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기도 하나, 변경이 이루어진 후를 실제 몸으로 체험해봄으로써 사진 합성 시 물레이션이나 스케치 같은 시각적 자료의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한 것이다.

시기에 안 맞게 급격하게 추어진 날씨로 의자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의자 분실을 염려한 할아버지가 외부 출타 시 의자를 치우는 일이 많았다. 나중에는 출타 시 마다 의자를 치우는 것이 번거로우시다고 아예 내부에 들여놓으셔서 큰 성과를 얻지는 못하였다.



쌀 상회 아저씨 E-의자가 배치된 곳은 상품들을 적치하거나 차량에서 하차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고정적인 시설 배치는 어렵다.

가로를 향하지 않은 의자 배치는 사람들의 이용을 끌어내지 못한다.

할아버지가 나름대로 의자와 화분의 배치에 변화를 주시고 계신다.

의자와 화분의 배치를 여러 가지로 바꿔본다.



5) 설계안 작성 (설계 진행: 조석만)

① 설계 방향 및 설계 내용

■ 설계 방향

이 길의 주된 역할은 사람들이 상가에서 물건을 사고 지나가는 보행길이다. 길가에 상가들이 줄줄이 모여 있는 모습을 볼 때, 어찌 보면 현대적인 시장 길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여기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쉽 터 공간'이다. 요시노부 아시하라가 <건축의 외부공간>에서 제시한 것처럼 보행길에 조그만한 쉬 터 공간을 주어서 단조로운 길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준다.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 대상지는 부동산과 쌀가게의 사적인 공간과 주민들의 대화의 장소로서의 공적인 공간이 공존한다. 최대한 사적인 공간을 존중할 뿐만아니라 공적인 공간도 확보해주며 또한 두 가지 기능이 같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의 상황으로 보아 상가 주인들은 화단을 활용하여 길과의 공간구획을 이루어내고있다. 이곳을 적극 활용하여 주변에 앉아서 쉴 수 있는 자리와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장치를 준다.

■ 설계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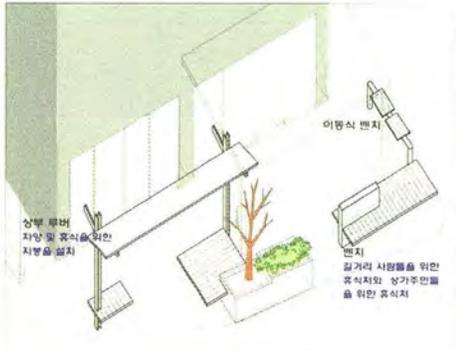
대상지는 도로변에 면해있는 상가의 공지부분이다. 도로에 면해있어 주민들의 공적 공간과 상가민들의 사적 공간이 공존하는 곳이다. 지금은 상가의 사적인 공간으로 쓰이고 있지만 거리를 걷는 주민들이 이곳에 잠시 머물러 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도로에 직접 면하는 가장자리에 벤치를 설치한다. 본래는 주차금지를 위한 방지대를 설치하였으나 도로에 면한 벤치를 놓는다. 지나가던 행인은 이곳에서 잠시 쉬어 갈수 있으며, 동네 어른들은 여기서 한가로운 담소를 즐길 수 있다. 주차 금지 방지대를 더욱 활용하여 이동식 벤치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벤치는 크고 작음으로 다양하게 구성하여 편상의 역할도 수행한다.

평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왼쪽에 벤치는 차양을 위한 상부에 루버를 설치한다. 루버의 방향은 도로면을 향할 수 있도록 곡선을 도입하거나, 도로면으로 열린 루버가 된다.

본래의 식재대를 활용하여 벤치의 위치를 정하고 상가의 동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벤치를 설치한다.

바닥의 재료는 적벽돌을 포장한다. 상부루버를 받칠 수 있는 구조물로 I형강을 선택한다. 하나의 구조물로 루버를 만든다. 벤치는 목재를 선택하여 편안한 느낌을 전달할 수 있게 한다.



3차원 개념도



계획 평면도



사진 합성 시뮬레이션

② 공사비 산출

구분	단위	수량 규격	재료	공사비(원)
전체 면적	m ²	23.7		
포장	m ²	23.7m ²	적벽돌	980,000
목재 벤치 (L<가로>× W<세로>× H<높이>)	mm	벤치 1: 800×500×400 벤치 2: 1,300×1,200×400 벤치 3: 800×400×500	상부: 미송 각재 마감 받침: 적벽돌(0.4×0.2×0.6m)	210,000
이동식 벤치	mm	0.5×1×0.3 1000×300×500	미송 각재 마감	120,000
루버	mm	루버1: 800x3900 ×6,800 루버: 2500x3900×6,800	덮개: THK 5mm 동판 기둥: THK 50mm I형강	460,000
총 합계				1,770,000

(주: 자재비, 노무비, 경비, 포함)



3장. 평가 및 제언

| 총정리 및 평가

| 본 연구의 의의와 제언



1. 총정리 및 평가

1) 총정리

구분	옥수동 공터	옥수동 계단 공간	금호동의 주차장 및 휴식 공간	원서동의 공터	전농동의 상가 앞	
현황	현황	몇 년 전 서울시가 녹화를 하였으나 관리 소홀로 쓰레기 적치장	유일하게 차량 통행, 주차가 없는 외부 공간. 봄, 여름, 가을 주민들의 일시적 여가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	동호로 상부의 주차공간 내 일부가 휴식공간으로 조성되어 있고 주차 차량이 적은 낮 시간 동안 어린이들의 놀이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	현재 활용되고 있지 않은 방법초소가 있으며 쓰레기 적치	상가내로의 이동을 고려하여 소규모의 녹지 공간이 조성되어 있음
	주변 토지 이용 현황	서민들의 다세대 주택가	좌동	좌동	소규모의 한옥과 불량 주택지와 다세대 주택지가 만나는 지점에 있음	다세대 주택지 내의 근린 상업 지역
	주민의 요구도	나무를 심고 벤치를 두어 쉴 수 있는 공간	주민들의 담소 공간	어린이들의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 저녁 시간대의 안전성 증진	쓰레기 적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공간	수목 식재와 주민들의 담소 공간으로 조성
진행	주민들과의 협력 방안	'우정회'라는 주민들의 자치 조직을 활용	좌동	개인 면담 등의 개별적 접촉	시민단체 도시연대와 지역의 리더격인 통장을 중심으로 의사소통	소유주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개인 면담등의 개별적 접촉
	주민들과의 의견 교환 방법	간담회, 설문조사, 면담조사, 어린이들의 그림 그리기	좌동	설문조사, 면담조사, 어린이들의 그림그리기와 사진찍기	지역의 리더와의 정규적 만남, 설문조사, 면담조사, 어린이들의 그림그리기와 사진 찍기	설문조사, 면담조사, 일시적 시설물 배치

2) 평가

첫째, 주민들과의 소통 환경 조성

대상지를 선정하여 구체적인 설계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효과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소통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이는 설계 자체 과정뿐만 아니라 향후 관리를 주민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더욱 필요하다. 결국 외부 공간 조성은 계기를 부여한 것이며, 주민들이 스스로 외부공간에 대한 공공성을 가질 수 있는 과정 속에서 관리로 이어질 수 있는 주민 참여의 토대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옥수동의 공터’와 ‘옥수동의 계단 공간’(이하 ‘옥수동’)의 경우 주민들의 자발적 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들과의 소통 환경을 조성하였고 원서동의 경우 동장이라는 지역의 리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의 의견을 주민들에게 전달하여 주민들과 전문가, 주민들간의 동의를 구해내었다.

그러나 물론, 전농동의 개인 상가 내 공간(이하 “전농동”)의 경우 사적 공간이라는 대상지가 갖는 특성으로 인한 것도 있기는 하였으나 전농동과 금호동의 주차장 및 휴식공간(이하 금호동)과 전농동의 경우 소통 환경의 조성 없이 지역민들과의 1대일 면담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전달할 수 밖에 없었다.

이는, 주민들 간의 자발적 조직이 없었다는 것, 앞장서는 리더가 없었다는 것에 근본적 원인이 있겠고, 연구기간이 짧은 관계로 지속적인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소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둘째, 디자인에 있어서 주민 참여 프로그램

디자인에 있어서 주민을 참여시키는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설계가가 주민들의 세세한 생활 현상들과 그 속에서의 정서를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주민을 참여시켜 대상지가 갖고 있는 특성들과 대상지에 대한 주민들의 정서를 명확히 이해하여 대상지에 적합하고 최종 이용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설계안을 내는데 있다.

주민참여의 일반적인 방식들은 공청회, 간담회, 주민 설문조사 등이다. 그러나 대상지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데 있어서 설문조사나 간담회 등 공식적이고 전문가가 설정한 틀 속에서 얻어낼 수 있는 정보는 단편적이라 개인의 체험에 의한 정보들과 외부자인 전문가가 발견할 수 없는 정보들을 얻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설계의 방향이나 설계된 내용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데 있어서도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용어와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시각적 자료들(도면 등등)은 일반인에게 생소하여 주민들이 실제감 있게 변화 후를 몸으로 느끼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는 원활한 전문가와 주민들

의 원활한 의사 소통에 있어서 어려움을 가져온다. 더불어, 주민들은 외부 공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거의 없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으려 한다. 아울러 주민들이 제시하는 의견들은 일반적 대중이 공원에 대해 갖고 있는 정형화된 모습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 속에서 얻어진 의견에 보다 무게 중심을 많이 둘 경우 창의적인 설계안을 도출해내기 어렵다.

따라서 일방적 설명이나 의견수립이 아닌, 관심을 촉발시킬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고 전문가들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갖고 있는 공원에 대한 정형화된 모습을 극복하여 자신들에게 진정으로 적법한 공간을 그려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들만의 언어-공원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과정과 내용에 대한 -를 교육하여 서로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설계가가 주민들의 의견을 이끌어 내는데 있어서 사용한 방법은 설문, 간담회 이외 개인 면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그림 그리기와 사진 찍기이며, 설계가의 의견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으로는 사진 합성 시뮬레이션, 일시적 시설물 설치(의자 놓기)였다. 그러나 여전히 앞에서 제시한 문제들을 극복하지는 못한 듯 하고 추후 보다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시도와 평가가 필요하다.

셋째, 행정과의 관계

원서동 사례에서 가회동 동사무소의 관심을 이끌어 낸 것은 매우 적절했다. 북촌에서의 여러 가지 활동에 동사무소도 하나의 주체이고 싶었던 정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인 도시연대와 동장과의 개별관계에 머물러버렸다는 것이다. 적어도 마을 만들기 에 있어서 행정도 하나의 주체로 참여해야 하며, 주체간의 긴밀한 공유체계를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가 분명 이 과정 속에서 담겨야 했었다. 도시연대를 정점으로 한 파편화된 관계를 극복해야 했다.

넷째, 시공된 결과물

먼저, 기본적인 시설 배치 외에 다른 효과(시각적 즐거움, 흥미 유발 등등 좋은 디자인이 줄 수 있는)를 높일 수 장치들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는 적은 비용과 최소한의 시설물을 설치해달라는 주민의 요구에 의한 것이기도 하나 좋은 디자인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던 탓이다.

또한 시공 전 준비 부족으로 인한 시공에 있어서 진행기간이 길어지고 현장에서 설계 변경이다. 원래, 설계하는 사람이 벽들의 개수며, 나사 못의 수며 의자를 고정할지 안할지에 대한 지침들을 아주 세세하게 공사하는 사람들에게 주었어야 했으나 대상지에 대한 정확한 측량이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고 워낙 소규모로 공사금액이 소액이라 공사 업체의 여건에 맞추어서 공사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이유가 될 것이다. 미리, 완벽한 도면이 만들어질 여건이 아니었다면 공사하는 사람들과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했으나 여건상 그러지 못하였다.

한평 공원 같이 작은 공간은 여러 용도의 공간으로 구획되지 않고 많은 시설이 들어가지 않는 대신 이용자와의 접촉이 매우 미세하다. 따라서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세세한 고려들이 있어야 한다. 재료들이 주는 느낌에 대한 고려 꼼꼼한 시공 등등. 원서동의 한 평 공원의 경우 이점에 있어서 그리 성공적이지는 못했다.

2. 본 연구의 의의와 제언

외부 공간의 주민 참여는 여러모로 생소한 것들이라 올해 한 해 동안 접근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많은 시행착오들을 가졌다. 그런데, 오히려 주민들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원서동 사례의 경우 그들은 그들의 방식대로 때로는 주민들 간의 갈등을 촉발시키기도 하고, 반대의견을 무시하기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갔다. 통장은 설계안이 그려진 페널 들고 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고 있었던 것이다. 수리를 위해 벤치를 잠시 치웠을 때 통장과 인접 주택의 할머니는 벤치의 행방을 찾아다니셨다고 한다. 주민들이 제시한 이러한 가능성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해야 하는지가 앞으로의 몫으로 남겨졌다.

아울러, 본 연구는 주민, 행정, 시민단체, 전문가가 함께 외부 공간에 있어서의 주민 참여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을 할 수 있는 계기였다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하겠다.

지방자치체 실시 이후 형성된 주민 참여 강조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외부 환경의 계획과 설계에 있어서도 주민 참여에 대한 관심들이 증대 하고 있고 관심을 넘어선 실천들도 간간이 이루어져왔다. 서울시는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시행되어지는 어린이 놀이터 재정비사업 명칭을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재정비공사'로 정하고 있고 계획 및 설계 과정과 시공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의무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1996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마을마당 조성 사업과 1998년부터 2002년까지의 '걷고싶은 거리 만들기 시범가로 조성사업'에서도 주민 의견 청취를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이 주관하는 공적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의 주민 참여의 내용은 설계 용역 수행 시 주민 설명회와 설문조사와 같은 의견조사나 사업통보 정도의 수준으로 실제적 득이 별로 없는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들이 많다¹⁾. '주민'을 환경 계획과 설계 행위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표준화한 조립라인식 과정에서²⁾ 객체로 참여시키는데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주민, 행정, 시민단체가 함께 외부 환경 계획과 설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볼 수 있었고, 비록 여러모로 부족하나 기

존의 행정이 일방적으로 주도했던 사업들과는 달리 주민 참여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

생활 속에서의 쾌적한 외부 공간에 대한 요구도는 증가하고 있으나, 행정과 전문가는 주민들의 구체적 일상 속에서 확인되는 경험의 세세한 흐름은 그들 자신들만이 만들어낸 추상적 개념들로 다루어지기에는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하다(김영민, 1997). 따라서 공간에 대한 주민들의 필요 사이에, 그리고 행정과 주민, 전문가와 주민의 사고방식 사이에 모순이 생겨나고 충돌하는 부분이 돌출된다³⁾. 이에 대한 대책은 시민단체, 주민,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공조 속에서 외부 공간에 대한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에서 한 평 공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들은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도 이러한 점을 염두하여 대상지들을 유형화 하는 등, 추후 한 평 공원의 확산 및 외부 공간의 계획과 설계에 있어서 주민참여 방안을 일반화 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본 사업은 매우 생소한 사업으로(대상지 선정에 있어서부터 위에서 아래로가 아닌 아래에서 위로의 방식) 그리고 1년 동안의 연구 기간으로는 미흡한 면이 많다. 추후, 올해 부족하게 여겼던 분

1) 연구 보고서 '걷고싶은 거리 만들기 시범 가로 시행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연구(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pp. 136-137)'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실제 위와 같은 용역을 수행했던 용역사의 파장급 실무자들(파장 급 이상)과의 면담 조사를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면담자들은 주민 설명회의 경우 통장이나 이나, 부녀회장 등 최종 이용자들 보다는 공식적인 주민 대표들이 많고 내용에 있어서는 추후 발생될 우려가 있는 문제들에 대한 제기가 많다고 한다. 더불어,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재정비공사'의 경우 추후 주민들을 통한 관리를 위하여 시공 시에도 주민들의 참여를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나 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한다.

2) Gans, 1968, *People and Plans*, p. 60

3) 김찬호, 2002. 도시는 비니어다. 책세상, pp. 43-45.

들을 시정하면서 그리고 보다 심도 깊은 실험들을 시도함으로써 한 평 공원 확대와 외부 공간 계획과 조성에서 주민참여에 대한 토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Fischer, Frank, 2000, *Citizens, Experts, and the Environment*, Duke University Press.
- Forester, John, 1988, *Critical Theory and Public life*, Alpine Press.
- Thompson, Ian H., 1999, *Ecology, community and delight sources of values in landscape architecture*, London and New York.
- 김현호, 1994, 의사소통적 국토, 지역계획의 모색,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제 29권 제 4호.
- Henry Sanoff, 2000, *Community participation methods in design and planning*, John Wiley&Sons, Inc.
- Wates, Nick, 1998, *The community planning-Handbook*, Earthscan publications Ltd, London.
- Al-Kodmany, K., 1999, "Using visualization techniques for enhancing public participation in planning and design: process,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45.
- Carr, Janet, 2002, "The value of community", *Landscape design* 306.
- Decamps, H., 2000, "Demanding more of landscape research",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47.
- Thompson, catharine W., 2002, "Urban open scape in the 21st century",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60.
- 김성균, 2001, 주민참여에 의한 마을마당설계: 서울 동작구 사당동 양지공원, *한국조경학회지*, Vol.29, No.3,
- 박현찬 외, 2001, 걷고싶은 거리 만들기 시범가로 시행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정태영, 2000, 컴퓨터를 활용한 주민 참여 설계, 서울대학교 조경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0.
- 에드워드 렐프, *근대 도시 경관*, 태림문화사, 1999
- 김영민, 1997, 탈식민성과 우리 인문학의 글쓰기, 민음사.
- 김찬호, 도시는 미디어다. 책세상, 2002.
- 존 쇼트, 2000, 인간의 도시, 한울
- 이석환, 도시 가로의 장소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8.
- 소진광, 2002,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의 연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세미나 자료집-21세기 국가발전과 국토환경.
- 에가와 나오끼, 1999, 집주 공간의 형태를 디자인한다, 도시환경 디자인.



부록

부록 # 1. 30개소 대상지들

2. 사례 조사



부록 # 1. 30개소 대상지들

동대문구

■ 대상지 1



□ 위치

• 동대문구 전농 1동 648번지 일대. 대상지 주변은 대로변 건물 한 켠 뒤에 있다.

□ 현황

• 주변은 주택가로 다세대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다.
• 차량이 드나들지 않는 골목내의 공간으로 담벼락 공간에 작은 평상을 두어 화분들을 올렸고 빨간 물통을 화분에 야채를 가꾸고 있다. 담벼락 공간 화분에 심겨진 넝쿨 식물이 화분 관리인이 연결한 철사 줄을 따라 주택 내 창문까지 뻗치고 있다

• 차량 진입이 되지 않는 골목이므로 적극적인 골목의 활용으로 주민들의 옥외 활동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대상지 2

□ 위치

- 동대문구 전농 1동 500번지 일대
- 배봉로 인접 보행로



□ 현황

• 대상지는 경사가 있는 지역으로 도로를 내면서 인도와 도로가 높이차를 두고 있다. 이로 인해 대로 옆임에도 불구하고 건물들은 상가가 아닌 주택으로 남아있고 인도는 일반주택가내 골목같이 쓰이고 있다.

• 차량 진입이 거의 없고 주차 차량도 많지 않아, 주민들이 화분과 평상을 내어놓아, 작은 소공원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 현재는 초본류 중심으로 심겨져 있으나 목본류의 도입도 괜찮을 것 같음

■ 대상지 3

□ 위치

- 동대문구 제기도 341번지 일대



□ 현황

- 대상지 주변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주택가로 도로는 불규칙하고 좁아 차량 진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대상지가 놓여진 곳은 골목들이 모이는 곳으로 넓고 주택 앞에 죽인이 작은 텃밭을 만들어 놓고 있다. 차량 진입이 없어 주민들의 활동적인 옥외 활동을 끌어내고 수용할 수 있는 골목 공간이다.

■ 대상지 4



□ 위치

- 동대문구 제기동 895번지 일대

□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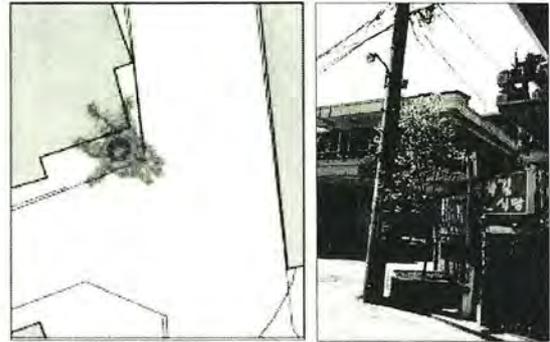
- 제기동 한옥 지어내 골목으로 폭이 넓지 않아 차량 진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 보행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아기자기하게 작은 화분들을 내어놓고 있다.

은 화분들을 내어놓고 있다.

■ 대상지 5

□ 위치

- 동대문구 전농동 294-248번지 앞의 골목길 모퉁이에 위치.
- 시립대 후문으로 들어가는 길목



□ 현황

- 주택 외부 담벼락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이 조성한 작은 식재 공간. 전주(電柱)뒤와 담벼락의 사이의 공간 활용이 눈여겨 볼 만 하다.
- 시립대 후문으로 들어가는 길에 위치하고 차량의 진입은 거의 없으며, 후문으로 향하는 학생들과 주민들의 보행이 많은 곳이다.
- 주변에 식당과 슈퍼마켓이 있어서 학생들이 자주 지나가는 길목이다.

■ 대상지 6



□ 위치

• 동대문구 전농동 294-173번지 주택 앞에 오르막 길 모퉁이에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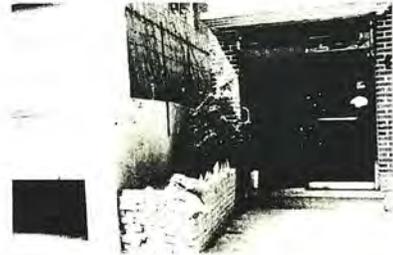
• 시립대 후문에 인접한 오르막 길

□ 현황

• 인근은 주거지역으로 4거리의 길에 인접해 있다. 주택으로 진입하기 위한 차량이 조금 있고 주로 사람들의 보행로로 이용된다.

• 주민이 차량 이동을 고려하여 주택 담벼락 아래 조성한 작은 식재 공간.

■ 대상지 7



□ 위치

• 동대문구 전농동 286-224번지 공동 주택 앞의 주차 공간 한쪽에 식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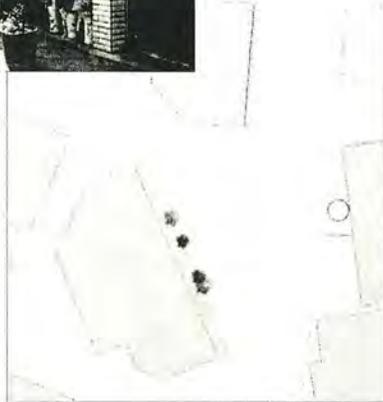
• 주거 지역에 위치한 공동 주택

□ 현황

• 주택가의 좁은 길에 면해있는 공동주택으로 사람들의 보행동선이 많은 곳이다.

• 공동 주택 입구부에 이동과 주차를 최대한 고려하여 조성한 녹지 공간.

■ 대상지 8



□ 위치

- 동대문구 전농동 293-62
- 삼거리에 접해있는 상가의 앞쪽 인도

□ 현황

• 상가 앞 인도에 차량 주차 방지를 위해 화분이 놓여짐.

• 인도가 협소하고 보행자가 많아서 타인에 의한 이동이 불가능하도록 화분을 고정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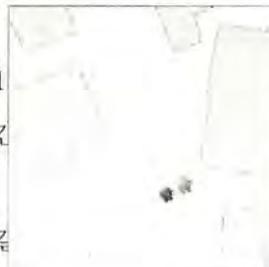
■ 대상지 9

□ 위치

- 동대문구 전농동 293-11
- 주택가의 담벼락 아래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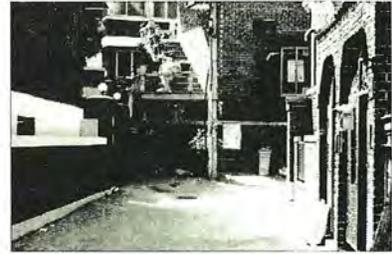
□ 현황

- 주택으로 들어가는 골목길



을 위한 공간이 아이들의 놀이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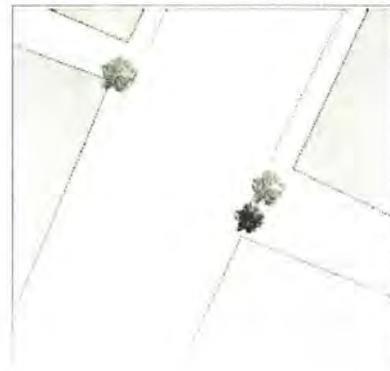
- 연립주택 골목길 내에 주민들이 담벼락 아래공간을 활용하여 화분을 놓아 자투리 공간을 활용.



■ 대상지 10

□ 위치

- 동대문구 전농동 293-83
- 주거지역내 골목길



□ 현황

• 연립주택의 가로에 형성된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나무 식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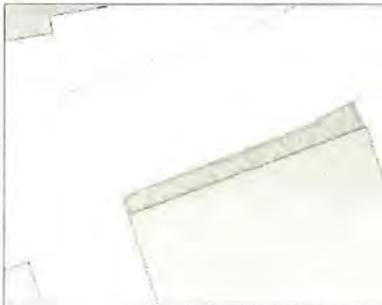
• 주택 담벼락에 조성된 화분으로 주택의 반 지하 공간 차폐 효과도 가짐.

■ 대상지 II

□ 위치

• 동대문구 전농동 295-10번지 길가에 위치한 빈터 공간.

• 공동주택이 길과 접함으로서 생겨난 조그마한 공터.



□ 현황

• 차량의 유동이 다소 많고 주로 보행자를 위한 길가에 위치한다. 시립대를 가는 길목에 있어 학생들과 인근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길이다.

• 폭이 1.5m정도의 넓이로 가로변에 놓여 있어 지나가는 노인들의 휴식처 공간으로 되고 있다.

• 주택가 내 담벼락 아래 공간. 북쪽에 위치하여 그늘을 제공하여 쉬었다 가는 행인이 많다.

성동구

■ 대상지 I2



□ 위치

• 성동구 왕십리1동 580, 570 번지 주변의 상왕십리역 1번 출구 인접 공간

□ 현황

- 현재, 자전거 보관대가 있어 자전거들과 벤치, 주변에서 내다 놓은 파라솔이 있다

- 주변에 철을 다루는 작은 공장들이 다수 있어 공장 근무자들이 쉬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시설이 불량하고 분위기가 칙칙하여 그리 일용 밀도가 높지 않다

■ 대상지 13

□ 위치

- 왕십리 제 1동 540번지 일대 골목 공간

□ 현황

- 15m 폭을 갖는 골목으로 가장 안쪽에 있는 빌라의 자동차들이 이동하기는 하나 이동 차량이 많지 않고 주차 차량도 그리 많지 않아 골목의 많은 공간이 녹화되어 있다.



■ 대상지 14

□ 위치

- 성동구 홍익동 4331번지 주변

- 8차선 도로의 인도 공간

□ 현황

- 인도 폭이 넓고, 건물이 앞으로 튀어나오는 덕에 2면으로 둘러싸이는 외부 공간이 형성된다.

- 인근 주민들이 소파를 내어 놓고 있어 통행인들이 잠시잠깐 쉬어가고 있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고 주변의 노점상에서 구입한 음식물을 먹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 대상지 15

□ 위치

- 성동구 옥수동 일대

- 주택가 내 폭원 10m 도로에 인접



□ 현황

• 주택을 지으면서 자유지 공간 내 남겨진 자투리 공간으로 협소하여 주차하기가 어려워 방치되고 있어 쓰레기 적치 등으로 집 주인의 불만이 많다.

• 주택가임에도 차량 이동이 많아 가로 내 옥외 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못하다.

종로구

■ 대상지 16

□ 위치

- 종로구 관훈동 272번지 주변
- 낙원상가와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해있음

□ 현황

• 주변은 주로 음식점 등의 상가들이 점유하고 있고 가로수를 제외하고는 거의 녹지가 조성되어 있지 않음

• 대상지는 상가 앞 공개공지 내 지역 상가 주인은 자동차의 주차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공간을 녹지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다.

• 투박하기는 하나 작은 녹음 공간으로 삭막한 상업 가로에서 작은 녹음을 제공 할 수 있는 공간



■ 대상지 17

□ 위치

- 종로구 계동 135-3번지 도로 공간
- 서울 게스트 하우스로 들어가는 입구부의 골목 공

간





□ 현황

• 불규칙하게 필지가 구획되면서 넓게 형성된 골목 공간을 '서울 게스트 하우스'에서 앞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주인이 화단을 가꾸고는 있으나 주변의 한옥들과 어울릴 수 있는 외부공간, 장기적인 디자인 전략 수립을 세울 수 있도록 전문가가 도와주었으면 한다.

• 게스트 하우스는 외국인들이 많이 머무는 장소로 우리나라 전통 정원에 대해 알릴 수 있는 공간이다.

중구

■ 대상지 18



□ 위치

- 신당 3동 48번지 내 녹화 공간
- 동호로와 접해있음

□ 현황

- 사람들의 왕래가 많지 않은 외곽 도로변에 있다
- 주변 주택가의 주민이 일부분을 텃밭으로 가꾸고 있으나 지속적인 관리는 되고 있지 못하다

■ 대상지 19



□ 위치

- 중구 홍인동 29번지에 위치한 한빛은행 인접 공간
- 도로위의 공간

□ 현황

- 대로(왕십리길)에서 진입하는 공간으로 건물주들끼리 협의하여 차량이동 혼잡을 고려하여 주차를 금지하였다.
- 주변에 중앙시장과 업무시설들이 있어 통과하는

사람들이 많다. 현재는 인접 상가에서 파라솔을 내어 놓아 낮에는 통과하는 사람들이 쉬거나 저녁에는 인접상가에서 술을 사서 먹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 대상지 20

□ 위치

- 중구 홍인동 744번지, 745번지 주변 2호선 신당역 1차 출구 주변
- 중부 시장으로의 진입공간



□ 현황

- 현재 장의자가 2개 놓여있고 주변 상인들의 휴식, 놀이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 비나 눈이 오는 경우가 아니면 항상 이용하는 사람들로 붐빈다.

• 주민들은 시설 정비를 원하고, 시의원으로부터 시설 정비 및 환경 개선의 약속을 받았으나 실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관악구

■ 대상지 21 : 연주대 어린이 놀이터

□ 위치

- 관악구 신림9동 6번지
- 주택가 어린이 놀이터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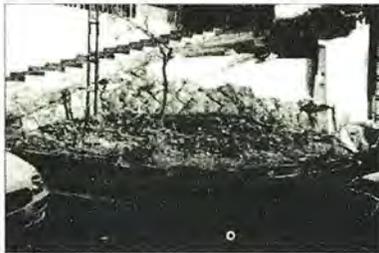
□ 현황

- 평면이 사다리꼴인 어린이 놀이터의 가장 짧은 변에 길쭉한 모양으로 덧붙여진 형상.
- 두 번째 사진에서 왼쪽이 길이고 오른쪽은 녹화된 비탈면임.
- 폭이 좁고 길쭉하며 길 쪽으로 울타리가 있어 사

람들의 발길이 거의 가지 않으나 주변이 주택가이고 바로 옆에 느티나무 노거수가 있어 정비하기에 따라 아주 양호한 쉼터가 될 수 있다.

• 마을 어르신들의 쉼터이자 근방 어린이(주로 취학 전 아동)들의 이용이 많은 것에 비해 사진에 보이는 대상지에 대한 이용이 현저하게 떨어짐.

■ 대상지 22 : 비탈면 아래 주인 없는 텃밭



□ 위치

- 관악구 신림9동 16번지
- 주택가에서 상가로 이어지는 지점

□ 현황

• 대상지의 오른쪽은 주택가이고, 왼쪽은 두 번째 그림과 같이 전통주점(동학)이 있다.

• 경사지 바로 밑에 위치한 본 대상지는 주변 주택과 상가의 쓰레기장처럼 버려졌었으나 두어 해 전부터 맞은편 음식점 주인이 텃밭으로 가꾸어 현재는 위 사진과 같이 깨끗하다.

• 대상지 앞길을 지나서 사람들의 대부분은 대학생들로서, 대상지 위의 비탈이나 계단에 자주 앉아 담소를

나누는 행태가 관찰되는 만큼 본 대상지의 공원으로로서의 잠재력이 풍부하다고 볼 수 있다.

• 주점 앞에도 별다른 이용 없이 버려지는 공간(현재 쓰레기가 버려져 있거나 불법주차로 이용됨)이 있어 두 공간을 연결하여 조성하여도 좋다.

■ 대상지 23 : 주택가 벽면

□ 위치

- 관악구 신림9동 78 번지
- 주택가 벽면



□ 현황

• 주변은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이 주류인 주택가로서 보행로 폭이 비교적 넓고 이 주변 주민의 주 통행로 중간 쯤 위치하였다.

• 흰 시멘트벽을 프레임으로 하여 빨간 벽돌 면이 아직 칠해지지 않은 캔버스를 연상케 한다.

• 직접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수평면의 대상지

외에 순수하게 '감상'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수직면 자투리 공간 가꾸기'를 생각할 수 있다.

- 벽면녹화라는 단조로운 벽면 가꾸기에서 더욱 발전된 벽면이용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임.

■ 대상지 24 : 우체국



□ 위치

- 관악구 신림9동 20번지
- 우체국 좌우 녹지

□ 현황

- 주변은 다세대 주택가이고 계단을 오르면 우체국이 있다.

- 우체국 좌우에 녹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현재 녹화가 되어있을 뿐 주민의 이용은 없다.

- 인지도 및 이용도가 높은 장소로서, 단순히 체신 업무를 보는 것 뿐 만아니라 마을의 시장과 같이 마을사람들의 입소문이 오가고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공공의 장소이므로 현재와 같이 사람들의 이용을 배제한 채 헛스

쳐져 있는 현재의 형태는 본 대상지의 이용 잠재력을 살리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 우체국 문 왼편의 녹지는 우체국 관련 시설물이 들어가 있어 이용 가능한 면적이 좁으나 오른쪽은 비교적 넓어 조성하기에 따라 훌륭한 커뮤니티 형성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대상지 25 : 상업지



□ 위치

- 관악구 신림9동 16 번지
- 주점 '동학' 앞

□ 현황

- 대상지의 오른쪽은 주택가이고, 왼쪽은 두 번째 그림과 같이 전통주점(동학)이 있다.

- 주점 앞은 여름밤에 주점의 연장으로 탁자를 놓고 흥을 돋우기 좋은 장소로서 사진에 보이는 울타리 장식은 그 배경이자 경계선이 될 수 있겠다.

- 주점 입점 초기에는 앞 공간을 단장하여 깨끗하였

으나 점차 가꾸지 않아 지저분해지고 현재와 같이 쓰레기가 버려지기도 한다.

- 상가 주변의 자투리땅을 상가 이용자들에게 공영화 하여 돌려주는 사례를 만들 수 있다.

■ 대상지 26 : 신림2동 파출소 옆

□ 위치

- 관악구 신림 2동 파출소 옆
- 신림2동 파출소 옆

□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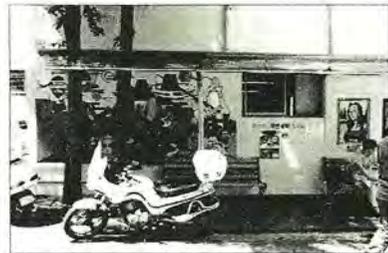
- 도립천변으로 난 2차선 도로를 앞에 두고 파출소가 있으며 그 옆면의 나무 밑으로 화단이 가꾸어져 있다.

- 여름이면 어디서나 나무 밑 그늘은 사람들이 쉬고 싶은 공간이 된다. 그러나 이 곳은 예쁘게 가꾼 화초로 인하여 감상만 할 뿐 주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쉼터가 되지 못하고 있다.

- 파출소 옆을 쉼터로 바꿔 인근 주민들에게 유용하게 쓰임으로써 파출소가 한 층 더 주민과 친근하게 다가간 사례는 신림 9동 파출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소극적

으로 화단을 조성한 2동 파출소와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쉼터로 탈바꿈한 두 공간이 대조적이다.

- 이미 쓰임새가 있어 문제가 없어 보이는 작은 공간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인근주민의 커뮤니티를 증진시키는 장소로서의 잠재력이 있는 대상지이다.



신림9동 파출소



신림2동 파출소

부록 # 2. 사례 조사

1. 필라델피아 북부 도심의 예술 공원들

필라델피아 북부 도시에 있는 비영리단체 Village of Arts and Humanities(이하 VAH)는 1980년대 중반부터 지역에 있는 버려진 땅들을 대상으로 녹음과 아름다움이 있는 예술 공원(Art Parks)으로 조성하고 있다. 이 단체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주로 흑인이 사는 빈곤하고 위험한 지역으로 행정과 주변 지역 주민들은 이 지역을 거의 포기한 상태였다. 그러나, 1986년 예술가 Lily Yeh가 지역의 한 버려진 땅을 화려한 공공 공원으로 개조하기 시작하면서 지역 활성화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고 더불어 이 사업은 VAH 단체의 기원이 된다. 이후, 세 번의 여름 동안, 어린이들을 비롯한 지역민들과 전문 예술인들이 1986년에 시작한 공원 조성 프로젝트를 완성시키는데 참여하였다. 공원은 모자이크 조각과 벤치, 벽화, 식물들로 도심의 오아시스가 되었고, 여기에 동력을 받아 1989년 VAH가 설립되었다. 이 단체는 예술 활동을 통해서 지역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데, 어린이들을 위한 방과 후 예술학교와 극장을 운영하고 있고 지역 특산품으로 공예품을 만들어내면서 경제 발전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150개 이상의 빈 공간을 공원, 정원, 녹지 공간, 과수원등으로 변경하였다. 공원에서는 농사, 원예 및 농사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다.

① Meditation Park

1992년부터 1993년 사이에 지어진 Meditation 공원은 Yeh가 디자인하였다. Yeh는 중국식 정원, 이슬람의 안마당, 아프리카 서부의 건축물을 디자인에 참조하였다. 과도치는 벽들, 타일과 돌로 그림이 새겨진 바닥, "Tree of Life"라는 모자이크 벽화는 지역의 예술가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냈다.



Meditation Park

② Village Eagles Youth Park

2000년 6월, 스테프와 코치, 선수들과 그의 가족들을 포함한 필라델피아 이글스 풋볼 팀이 함께 참여하여 10th 거리와 에리조나 스트리트의 절절 점 공간에 Village Eagles Youth Park를 조성하였다. 공원 조성을 위한 기금은 Eagles Youth Partnership의 기부금으로 조달 되었고 공원에는 운동장, 아프리카 서부 스타일로 조각되고 모자이크된 벽이 만들어졌고 꽃들이 심겨졌고 벽화가 그려졌다



2. 더럼 서부의 램쇼 공원

영국 더럼(west Durham)에 서부 있는 램쇼 마을은 작은 농촌 마을로 마을에 있는 주민 조직은 1998년 비영리 단체인 Groundwork에 마을 중심에 있는 버려진 조그만 땅에 대한 개선 사업을 요청해왔다. 대상지는 한때 기차선로의 대피선이었고 최근에는 석면을 쌓아두는 농업용 창고로 쓰였었다.

Groundwork는 주민들과 여러 방면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고 이 속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냈다. 농구 코트, 설 곳이 있는 정원, 어린이 놀이 공간, 지역 학교를 위한 야생 초화원. 기존 벽의 유지와 주변 주택들의 프라이버시 유지를 위한 나무가 심겨진 작은 언덕 만들기, 파고라, 대상지의 중심에 기존의 말뚝들을 재배치하기 등등이 토론을 통해 나온 아이디어들이다.

이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여러 공공 기관과 개인 기관이 50,000 파운드를 기부 하였으나 즉시 쓸 수 있는 금액은 반 정도였다. 아이디어 수집 단계를 벗어나 디자인 과정이 마을의 주요 토론 주제가 됨에 따라 처음의 열정과 참여도를 끝까지 유지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되어졌고 다년간 지속될 수 있는 하나의 사업 진행 내용 틀을 구축하였다.

자금 조달을 고려하여 사업진행을 두 단계로 나누어 계획하였으나 대상지 정지 작업을 지역 탄광 업자가 무료로 맡아주는 덕에 사업진행은 세 단계로 나누어 이루어졌다. 즉, 무료 정지 작업, 1단계 자금 조달을 통한 사업 진행, 2단계 자금 조달을 통한 사업진행.

대상지에서의 공사가 시작되기 몇 달 동안 더럽 의회는 석면을 제거했고 토지를 지역 단체에 임대했다. 필요한 목재들이 무료로 제공되어지거나 땅의 표면을 덮을 때 쓰이는 표토 층을 싸게 구입할 수 있게 되는 등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처음 예산 사용 계획과는 다르게 예산이 쓰이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돈을 절약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혼란을 갖고 왔고 주민들은 예산을 아끼기 보다는 높은 수준의 결과를 원했기 때문에 남은 비용은 조사와 건설사를 감시하는데 사용되었다. 일례로 싸게 구입된 표토 층의 질을 평가 위해서 주민들은 비용을 들여 독립 연구소에 검사를 맡기기도 하였다. 비록 이와 같은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있었지만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주인 의식으로 사업 진행 틀은 끝까지 잘 유지되었고 이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변경 전



변경 후

3. Diamachi Fureai Park.

나고야는 인구 2만 명이 16개 구에 살고 있는 일본 도시이다. 나고야의 중심에 위치한 인구 100,000명의 소와구 어린이들은 어린이 놀이터가 부족하여 주로 집과, 거리 그리고 주차장에서 놀았다. 세 아이를 갖고 있는 요시 오노라는 주부는 나고야 시청에 어린이들이 친구들을 만나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안전한 외부 놀이터를 요구했다. 비록, 관청에서는 그녀의 요구에 공감을 했으나,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추후 그녀는 근린주구의 육아 학교가 어린이들을 위해 공원을 지을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어린이들과 육아학교 직원들 그리고 주민들 간의 합동 프로젝트를

제안하기 위해 학교 대표를 만났다. 근린주구의 부모들과 어린이들 간의 초기 모임에서는 다음 4가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1. 어린이들은 외부에서 안전하게 놀 수 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공차기, 줄넘기 그리고 그네타기, 미끄럼타기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원했다.
2. 부모들은 그들의 이웃과 쉽게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원했다.
3.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어린이들, 그들의 부모, 그리고 나이 많은 어른들, 장애인들을 위한 공원을 원했다.
4. 부모들과 육아학교 직원들은 협동작업을 원했고 '공원 만들기'를 하는데 동의했다.

지역 공원부와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시명 운동을 시작으로 공원에 대한 시의 동의를 구하기 시작했다. 공원을 원하는 18,000명의 청원서는 나고야 시장에게 전달되었다. 청원서는 소와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원을 전혀 갖고 있지 않고 그들의 근린주구의 하나인 코지소는 적당한 위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들은 어린이들은 외부공간에서 안전하게 놀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나고야 시의회는 공원에 대한 요구를 승인했고 적당한 위치를 찾기 위해 커뮤니티 지도자들을 교육했다. 공원 방문단을 조직서 근린주구 주민들이 다양한 선택 사항들을 익히도록 했다. 가능한 위치와, 공원 주제 그리고 공원에서의 활동에 대해 묻는 설문지가 커뮤니티 전체에 돌려졌다. 근린주구 주민들은 설문조사를 했고, 시청과의 회의를 개최했고, 다른 공원들에 대한 모습들을 사진으로 담았고, 사업 계획을 발전시켰고, 전문적 요구 사항을 정리했다. 근린주구 조직체는 어떻게 어린이들이 노는지 그리고 어떻게 공원을 건설해야 하는지 그리고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디자인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게임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컨설턴트의 도움 받았다. 나고야 시청에서 나온 디자이너는 공원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전문적 지침을 주었다. 모든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동의한 점은 공원은 근린주구에 기반을 두어야 하고 이웃들이 주요 이용자들은 자신들이 될 것이므로 관리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근린주구 조사에서 다음의 다섯 가지 주제가 발전되었다.

어린이들은 공놀이를 할 장소를 원한다.

부모들과 어린이들은 그들 자신의 공간을 원한다.

부모들과 어린이들은 그들 자신의 공간을 원한다.

그늘을 줄 수 있는 나무들과 꽃 정원이 필요하다.

공원에 물 요소가 도입되어야 한다.

공원은 장애인들이 접근 가능해야 하고 장애인들이 좋아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근린 주거 민들을 포함한 디자인 게임 워크숍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 질문에 대한 답이 이루어졌다.

우리의 공원은 어떻게 커뮤니티 의식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좋은 공원을 만들 수 있을까?

좋은 공원을 위한 조건에는 무엇이 있는가?

근린주구의 노약자들과 장애인들이 포함된 대략 60명 정도의 사람들은 하루 동안 공원 디자인에 참여했다. 미리 놀이기구 카탈로그와 게임 보드, 다양한 색의 마카, 가위 같은 디자인 장비들을 준비하였다. 몇몇 어린이들은 그들이 공원에서 보고 싶은 그림들을 그렸고, 다른 어린이들과 어른들은 6명씩 그룹을 지어 공원에 대한 삼차원 모델을 만들었다. 각각의 팀은 모든 연령대 어린이들에게 적당한 활동에 대한 생각들을 제시했고, 그리고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자신들의 계획안을 평가했다.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적당한 공간

공놀이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모든 연령대의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

휴식을 위한 조용한 공간

각 놀이기구 주변의 안전한 지역

장애자들을 위한 접근성

안전한 환경

공원에 차가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제안된 디자인에는 낮은 연령대의 어린이들을 위한 미끄럼과 그네, 연령대가 높은 어린이들을 위한 공놀이 공간, 부모들이 어린이들을 감시하고 이웃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들이 포함되었다. 공원에서의 수용 할 활동 종류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진 후 계획과 시공 일정이 정해졌다. 공원 시공에는 커뮤니티의 어린이들과 어른들의 자발적 노력이 있었다. 어린이들과 부모들로 이루어진 95명의 자원 봉사자들은 공원의 콘크리트 벤치와 벽의 모자이크 그림 디자인을 스스로 했고 실제 만들기 까지 했다. 공원은 세달 만에 완성되었다.

또한, 공원 운영도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놀이 지도자들은 공원에서의 어린이들 활동을 관리하고 다른 자원봉사자들은 나무 관리, 관수 등의 다양한 정기적 유지 관리에 참여하고 있다.

최근에 이곳으로 이사 온 젊은 엄마들은 자신들의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놀이 집단을 만들 수 있도록 매일 같이 공원을 방문한다. 아이들은 맨발로 뛰어 다니며 행복해하고 물과 진흙을 갖고 논다. 나이가 많은 어른들은 공원은 도시 활동들과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얻는 근원지라고 전한다. 공원은 또한 많은 축제 공간이고, 600명의 사람들이 참여한다. 전형적인 축제에는 다양한 게임들이 있고, 지역적으로 음식을 준비하고 바자회를 개최한다. Star 축제기간동안, 대나무는 색색의 종이로 장식되었고 Full Moon Festival에서는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어 색을 칠했다. 보이 스카우트들은 정기적으로 축제를 개최했고 가까운 대학의 대학원생들은 자주 방문해 공원 이용자들을 도왔다.

연구 총괄

성종상

(조경설계서안연구소 소장)

연구 책임

김연금

(조경설계서안연구소 연구원,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박사과정)

연구 진행

조석만

(조경설계서안연구소 연구원,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석사과정)

신근혜

(조경설계서안연구소 연구원,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석사과정)



주민 참여형 한(一)평(坪)공원

만들기 프로그램 개발

조경설계 서안(주)부설
환경설계연구소

